



# 문화매일신문



제1574호

2024 / 4 / 30 / Tue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경북도, 다양한 지원책 준비로 영농철 일손부족 없다!

### 98만명 인력 지원계획.. 농촌인력 공급서비스센터 50개소 확대 운영

경상북도가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올해 공공영역에서 98만여 명의 인력공급을 목표로 농업인력 지원 시스템 내실화, 내국인 근로자 지원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등을 확대한다.

먼저, 도는 농업인력 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한다. 10월까지 농번기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을 운영해 농작업 진행 상황, 인력수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식품부, 시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인력수급 지원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중점 관리 시군 10곳을 선정해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도농인력증가플랫폼을 통해 농가 및 구직자 구인·구직 신청, 실적관리, 이력 관리 등을 전산화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구인·구직자 매칭을 강화한다.

둘째, 농번기 인력부족 농가에 인력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내국인 근로자 지원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46개소를 운영하던 농촌인력공급서비스센터를 올해는 전 시군 50개소로 확대 운영해 총 33만 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촌인력증가센터와 지원센터에서 도시구직자 등 유망인력과 농가를 적기에 매칭해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인력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처음으로 도 농촌인력증가센터도 운영한다. 도 인력증가센터는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시구직자 모집 홍보 활동에 힘쓴다.



관내 또는 인근지역의 인력공급만으로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청송, 영양, 봉화, 울진 등 4개 시군은 농촌에 체류하며 농작업에 참여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한다.

도시에서 모집한 7백여 명의 체류형 영농작업반 참여 인력들은 농번기(5~11월) 중 1개월 내외로 농촌에 체류하며 농작업에 참여한다.

또한, 농식품부와 고용부 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도농상생 일자리 채용사업'에 안동,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청도 등 7개 시군이 참가해, 5만여 명의 도시 유망인력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 참여형 일손돕기 운동도 지속해서 추진해 도·시군 공무원, 농협 등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대학과 연계해 범도민 농촌 일손 돕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실제 일손이 절실한 장애인, 고령 및 독거 농가 등에 부족한 일손을 보낸다.

마지막으로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20개 시군에서 8,873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서 배정받아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보낸다. 이는 지난 한 해 배정받은 7,432명보다 대폭 늘어난 역대 최대 인원이다.

또한, 시군이 선정한 농협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 후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 근로 센터를 지난해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한편, 경북도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에 김천시 등 5개 시군이 선정돼 농촌 고용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농촌인력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안정적인 영농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전남도, 5월부터 'K-패스' 시행...대중교통 이용 촉진 기대

###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 최대 53% 환급

전라남도는 도민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5월부터 새로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케이(K)-패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케이-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한 사업이다.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일반 20%, 청년층(19~34세) 30%, 저소득층 53%의 교통비를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10개 시군에 케이-패스를 우선 시행하고 이용 효과성 등을 분석해 향후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개 시군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해남, 무안, 장성, 신안이다.

카드 발급은 주요 은행과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5월 1일부터 출시되는 케이-패스의 앱이나 누리

집에서 회원 가입을 완료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일일이 기록해야 하고 이동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를 할인하는 등 혜택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케이-패스는 이 불편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혜택을 강화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신규 카드 발급이나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기존 카드로 알뜰교통카드 앱이나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등의 절차를 통해 케이-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케이-패스 도입으로 도민에게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게 돼 도민의 출퇴근·통학길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케이-패스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남도 대중교통 체계 혁신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서울시, 수도관 세척부터 사후관리까지 더 꼼꼼히! 아리수 안심하고 드세요

### 전국 최초 세척 효과 검증 위한 평가매뉴얼, 전담관리인 현장 배치해 세척과정 관리

서울시가 올해 147억 원을 투입해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도관을 말끔히 씻어낸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에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 세척과정을 관리하고, 전국 최초로 수도관 세척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매뉴얼을 마련해 세척 이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세척이 필요한 '대형 수도관(지름 400mm 이상)' 총 414km 구간 중 올해 81.5억 원을 투입해 38km를 씻어내고, '소형 수도관(지름 80~350mm)'은 65.5억 원을 투입해 755km 구간을 우선 세척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장 역량 있는 수도관 세척 업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업체 선정 시 서울 지역 등록업체에 부여했던 '지역 가점'을 폐지, 전국 7개 환경청에 등록된 '상수도관관리대행업체'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모두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세척 업체 선정은 관련학과 교수 등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기술력, 현장 적용성, 세척 효과 등 6개 분

야에서 수행 능력을 면밀하게 평가해 최종적으로 12개 업체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또 지자체 최초 세척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매뉴얼을 제작했으며 수도관 세척 전담 건설사업관리인을 배치해 세척 전체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 세척 품질을 올리는 한편 현장에서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관 세척 효과는 세척 전·후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필터 테스트 및 관체 절단을 통한 직접 조사를 진행하고 세척 이후 7일간 수질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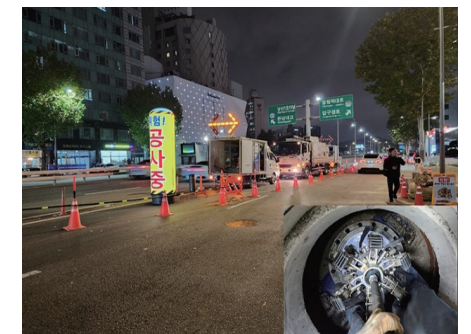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수도관 세척 결과,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 탁도'는 0.36 → 0.20 NTU로 0.16NTU 개선되고 미생물 번식 억제를 위한 '잔류염소'는 0.24 → 0.31mg/l로 0.07mg/l 향상돼 수질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시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도관 세척 대상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세척을 위한 작업구 및 퇴수구 설치 후 본격적인 세척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형수도관'은 기계를 투입해 고압수 회전 분사 및 브러쉬 회전 방식으로, '소형수도관'은 기계 세척·공기 주입 등으로 충격파를 만들어 내 세척하는 등 각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도관 내부의 이물질을 씻어낸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맑은 물 '아리수'를 생산해 가정까지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도관도 매년 꾸준히 교체·세척하고 있다"며 "세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척 결과를 면밀히 평가,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곤충의 시간! 경기도농기원, '2024 경기곤충페스티벌' 개최

### 축제 기간 : 5월 18일(토)~19일(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2024 경기곤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한 회차당 300가족이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는 농업기술원에서 1일 2회, 이틀간 총 4회로 운영되며 오전 회차는 9시부터 13시, 오후 회차는 14시부터 18시까지 나눠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홍다리사슴벌레 등 희귀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곤충생물체현관 ▲곤충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곤충 콘텐트 전시 ▲식용 곤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직접 시식이 가능한 곤충 시식회 ▲경기도 내 생산 곤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곤충 특가전 ▲장수풍뎅이 등 다양한 곤충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곤충 오감체험 ▲나비와 메뚜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생물관 ▲마술공연, 버스킹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된다.

이밖에 곤충영화관, 곤충페이스페인팅, 곤충목걸이만들기, 곤충게임 등 현장에서 즉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2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곤충페스티벌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성재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지역의 곤충자원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로 참여자들이 가정



을 벗어나 현장에서 곤충을 직접 체험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충남도, 방산부품 중소기업 생산 설비 등 지원

### 도 남부출장소,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추진



충남도 남부출장소는 최근 방산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도내 방산 중소기업이 부품을 제때 납품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본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부터 3개년간 총사업비 22억여 원을 투입해 부품 공급 중소기업이 생산 물

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은 생산설비 개량·증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장비 개선, 노후 생산설비 개선을 통한 품질 안정화 등 생산설비 고도화 및 생산 최적화 지원이다.

사업 대상은 대규모 방산 수출(2022년 기준 5000만 달러 이상) 무

기체계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도내 소재 방산 중소기업이며, 방산 매출 비중, 수출 무기체계와의 정합성, 지원 신청 설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올해는 3개 기업을 선정해 업체당 8500여만 원(자부담 50% 별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모집 공고를 확인해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이만호 도 남부출장소장은 "도내 방산 중소기업이 '케이(K)-방산 수출 확대'라는 호기에 안정적인 부품 공급 능력을 입증하고 추가 계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경남도, 수상 안전관리 본격 추진...'안전한 여름 나기'

### 기존 내수면 물놀이 중심 안전관리에서 포괄적 수상 안전관리로 확대

경상남도는 수난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른 더위와 이상고온 현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여름철 수난관리를 소관 부서별로 관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2024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계곡·하천, 워터파크, 수영장, 수상레저, 낚시터, 중점관리저수지 등 총 7개 분야 469개 관리대상을 포괄적으로 관리하여, 여름철 수상인명사고 예방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5월 초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점검, 성수기 특별점검 등 단계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요원 배치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민회의에 참석한 안전관리요원의 제안에 따라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운영'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중점관리지역 등 수심이 깊은 물놀이 지역에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계곡 물놀이 지역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피서객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해 물놀이지역 지정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물에 빠진 피서객을 능동적으로 감시하는 물놀이지역 지능형 CCTV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 설치하는

한편, 시스템의 성능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물놀이 지역 내 익사자 탐지, 위험구역 침범여부 등에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상고온 현상으로 물놀이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상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도민들도 물놀이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현장 안전관리 요원의 통제에 따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재현/기자





# 경북도의회 이철구 운영위원장'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강력 촉구

경상북도의회 이철구 운영위원장이 4월 25일 제주 선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의회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철구)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했다.

이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도록 우리 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격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



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

어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

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회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폐회

### 한맥개발(주) 장학금 기탁 약정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예천군의회는 29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23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제27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7,266억 원 대비 300억 원 증액된 7,566억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결정됐다.

또한 군의회는 김홍년 의원이 대표발의(의원전원발의한) ‘한맥개발(주) 장학금 기탁 약정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군의회는 “한맥개발은 지난 2009년 예천군민장학회에 매년 2억 원씩 5년간 10억을 기탁하겠다는 약정을 했지만 2019년을 마

지막으로 총 3차례 3억 원만 기탁한 후 추가 기탁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맥개발(주)는 예천군민장학회와 약정한 장학금 10억 원 중 아직 기탁하지 않은 7억 원을 신속히 기탁하기를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최병욱 의장은 폐회사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 만큼 남비없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당부했고, “5월은 다양한 행사 있는 가정의 달로 봄꽃축제와 예천활축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등 각종 행사와 대회가 있으니 가족, 친지들과 행사장을 방문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말했다.

김선일/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호성중학교 인근 전기버스 충전시설 및 차고지 건립 문제 해결 촉구

안양시 호성중학교 주변에 전기버스 충전시설 및 차고지 건립 계획이 알려져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적극 반대에 나섰다. 호성초등학교, 호성중학교 학부모회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6일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약 7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다.

특히, 이번 집회는 의왕시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다.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의왕시 주민들이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학교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들과 함께 건립 반대 집회에 참여한 조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호성초·중학교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부수 요청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시계지로 눈앞의 시급한 문제만을 해결할 뿐 궁극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

았다.”며 시의 소극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환경을 해치는 학교 유해시설을 방지하고자 교육환경보호구역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정 국회의원의 실과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버스 충전소 건립과 관련해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 전기버스 충전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수와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마련 등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기버스 충전시설 및 버스차고지 건립은 바로 인접해 있는 호성중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통학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육정미 대구시의원, “업무분장 둘러싸고 학교 현장 갈등 심해, 업무표준안 반드시 수립해야”

### 교사가 CCTV 관리 담당하는 비율 대구가 전국 1위(96.15%)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은 서면질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분장 갈등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대처를 지적하고, 업무분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수립을 촉구했다.

익명의 교사가 시작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CCTV 관리 업무분장 실태 조사에서, 교사가 CCTV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가 약 9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육 의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교육

청에서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며,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학교장 책무로 정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CCTV 관리 업무, 시설물 설치·관리 업무 등을 교사가 담당하지 않도록 진교조 충남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을 수립해 행정과 교무 등 각 영역의 업무담당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사례를 언급하며, “각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의 대구시교

육청의 대처는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비단 CCTV 업무뿐만 아니라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산업안전 업무, 정보 및 보안 업무 등 많은 부분에서 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한 뒤, 업무분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수립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교육청 지하급식실 해소계획 문제점 지적

### 교육청 발표와 달리 2028년까지 지하급식실 완전해소 불가능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3월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지하급식실 해소계획’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서울교육청은 폐암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실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8년까지 지하급식실이 있는 107개 학교의 지하급식실을 순차적으로 완전해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지상 이전 증축, ▲지상이전 리모델링, ▲환기시설 개선, ▲수업료 자율학교 특별교부금 신청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해소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증축공간이 존재하고 건축법에 따

라 건축행위가 가능한 18개 학교는 지상 이전을 실시하고,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유휴교실을 급식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7개 학교는 유휴교실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한 증축 및 리모델링이 불가능하거나, 건축법상 지하임에도 외부 공기가 잘 통하는 67개 학교는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수업료 자율학교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지하급식실을 이전 증축할 계획이다.

홍국표 의원은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환기시설 개선 대상인 67개 학교 중 건축법상 지하이지만 외부 공기가 통하는 곳은 19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48개 학교는 여전히 지하급식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급식실은 공간이 협소해 고성능 대형 환기시설 설치에 어려워 환기시설 개선만으로는 지상급식실 수준의 환기가 불가능함에도 교육청은 마치 모든 지하급식실이 2028년까지 완전히 해소될 것처럼 발표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교육청은 48개 학교에 유휴교실이 발생할 경우 지하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학교마다 유휴교실 발생 시점이 다르고 유휴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2028년 이후에도 여전히 지하급식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학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최광수/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연구회,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벤치마킹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연구회’가 2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중랑구 환경교육센터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시행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이해정, 최창호, 손성익, 손형배 의원과 시 담당 부서 관계자,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 시·내·외부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시설 설립과 운영, 체계적인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참여 확대 현안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해정 대표의원은 “사회환경교육은 사회적 책임감과 협력능력을 기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며 “지속가능한 발전, 공동체 의식, 환경보호 등의 배움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로써 파주시 사회환경교육 시설 조성 구축에 필요하며 인재를 함께 길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연구회는 파주시 지역의 특성을 접목한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조사해 지속 가능한 환경문제 예방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 환경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환경교육 시설(센터) 조성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김밥 페스타' 통해 경기미 소비 촉진 도모

## 이오수 의원 "경기미 활용한 김밥으로 미식 문화 선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K-푸드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김밥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경기도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2024 경기미 김밥 페스타'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 경기미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한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참석하여 김밥 경연대회 및 체험행사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밥맛 좋은 경기미로 만드는 세계인의 김밥'을 주제로, 경기미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김밥 경연대회와 이색 김밥 만들기 체험행사, 지역 농산물 판매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밥 경연대회는 K-김밥 열풍을 반영하여 외국인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오수 의원은 "K-푸드의 열풍이 지역 농산물의 소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경기미를 활용한 김밥으로 미식 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경기



미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 농정해양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받은 이후부터, 소비자가 다수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축제형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주장해 온 바 있다.

특히, 경기미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김밥 축제'를 기획하여 실행할 것을 지속 요청했으며, 2024년 예산 편성 시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번 행사는 수원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로서

도 의미를 갖는다"라며, "경기미 김밥 페스타가 우수한 경기미를 알리고, 지역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개최된 경연대회에서는 김포의 금쌀과 파주 장단콩으로 만든 장, 고양시의 열무를 활용한 '김파고 평화김밥(이나영)'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경기도는 '2024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이어 쌀 베이킹 콘테스트, 떡 경연대회 등 경기도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발전 방향 제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경기도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의 시간'임을 강조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도, 도의회, 교육청 등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센터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능 및 역할 발굴에 대한 의견을 모아 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 정책 현장지원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진행됐다. 특히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할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전해 한다면 센터의 인력구성 및 업무 등에서도 새로운 역할 설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주제발표에서 김미정 재단 연구위원은 "영유아 중심이 되는 유보통합의 본래 취지대로 보육과 교육, 국공립과 민간 간 차이를 줄이고 공평한 출발선과 영유아 권리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유아체험교육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체계를 넘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포괄하는 새롭고 확대된 기관으로서의 설립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효숙 의원은 "정부는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만0~5세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통합모델을 제시했다"면서 "일원화의 1단계 조치로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즉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법은 이미 통과됐고, 이제는 행정의 시간을 따라야 한다"라며 "정착하는 데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영유아 유보통합은 기정사실이다"고 부연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2026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겹칠 우려 속에서 가령 생애주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만0~2세, 유아교육진흥원은 만3~5세 지원에 집중함

으로써 각각의 전문 영역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유아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의 시간 속에서 경기도와 교육청 등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가며, 각 기관별로 전문성을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어필함으로써 이에 대한 추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보육전문가'로 일을 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유보통합 정책과 예산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영유아 유보통합 연구포럼'을 운영 중이며, 최근 '경기도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유보통합 추진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자살유족 힐링캠프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정담회 개최

## 유가족 상황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개최 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4월 26일 자살유족의 일상 회복 및 건강한 애도과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여가 체험활동)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김병만 정신건강과장, 우금연 자살예방팀장, 심소영 세이브유 상담복지연구소장, 강명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하여 힐링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자살유족 힐링캠프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성환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행사이다.

조성환 의원은 "행사를 계획함에 있어 유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조모임의 형식으로 준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은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 경기도 자살유족의 심리적 회복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자살유족 힐링캠프는 5월 17일 경기도 가평군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매

년 수립하게 하고, 사업 운영 성과,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이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

례'가 제정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기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책 시차가 발생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범상/기자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지구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4.4.26. - 5.12.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 이천시, 2024년도 제4회 "민·관 소통협력협의회" 개최

## 원활한 민·관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이천시 지난 27일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공무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협력을 위해 2024년도 제4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행업체 측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건의 사항으로 "건축허가 준공 시 건물측량성과도 제의 요청" 등 총 5개 안건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함께 의견을 교환했으며, "비상주 감리 시 법령에 따른 철저한 감리 업무 수행"도 강조했다. 시 측에서는

건축사협회와 공간정보협회에서 개발행위 수요자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만큼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개발압력 저하로 발생하는 인허가 대행업체의 애로사항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 공간정보협회(회장 신동혁)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인허가 대행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이천시에 감사하며, 이 위기를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있는 시간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전했으며,

이천시 허가과(과장 이재학)는 제안 내용 설명과 함께 대행업체 측에게 건축·개발행위 설계 시 지역 건설업체

장비 및 자체 사용, 관내제품 적용 등에 협조토록 당부했고, 시 측에서도 허가조건에 이를 권고사항으로 명시하여 관내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안내했다.

특히, 이천시 허가과(과장 이재학)는 "허가과정에서 시민들과 시의 중재역할을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민관협업과 소통을 통해 민원인분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허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속·정확·친절한 원스톱 허가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시 민·관 소통협력협의회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연말까지 정기 개최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용인특례시, "와, 신세계다" VR 고글 쓴 어르신 감탄 연발

## 3개구 노인복지관 65세 이상 어르신에 다중이용시설·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와, 신세계를 본 것 같아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공연장에서 출구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인파에 밀리는 느낌이 정말 실감납니다. 신봉통하네요!"

용인특례시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올 1월부터 시작한 어르신 VR(가상현실) 안전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처인·기흥·수지 노인복지관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엔 매회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어르신들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순간적으로 군중이 몰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와 대피로를 미리 확인하고, 군중이 쏠리는 방향에 따라 이동하는 등 수칙을 VR로 간접 체험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 위기에 처했을 때, 폭염이나 한파로 위험에 처했을 때 등 구체적인 재난 상황도 VR 기기로 경험하며 실제상황처럼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응급상황에 따른 심폐소생술 실습과 기도폐쇄(하임리히법) 등도 모션 인식형 장비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동작이 서툴고 느리지만 VR기기 본체인 고글을 얼굴에 착용하고 조작키인 컨트롤러를 두 손에 쥔 어르신들의 모습은 시가 초등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VR 안전교육과 겹쳐 보일 만큼 유쾌하면서도 사투 진지해 보였다.

처인구 포곡읍에 거주하는 정대선(84세) 어르신은 "좌우로 시선을 돌

려 보니 정말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게 다 있구나 싶어요"라며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몇 번 해보니 정말 공연장에 와있는 것처럼 실감 나고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좋은 연습이 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3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VR을 활용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분야 교육을 했는데 올해부터 학생과 영유아, 성인은 물론 어르신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개구 노인복지관과 협약을 맺었다. 시가 전문강사와 VR 장비를 지원하고 3개구 복지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며 원활한 교육을 위한 강의실을 제공한다.

시는 올해 기기 사양을 높여 대상자들이 실감 나는 체험을 하도록 했다. 영상의 회전 각도를 360도로 넓히고 모션 인식도 가능하도록 몰입도를 높인 것이다.

시는 앞으로 마을 경로당에서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진행해 보이스피싱예방 범죄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10만 시민의 15.3%인 16만 4000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 안전 문제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커진 만큼 VR 기기를 활용해 위급 상황에 대처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여주시, 5060 역량강화 프로그램 '미술관 속 마음 북소리' 수강생 모집

여주시는 지난해 이어 베이비부머(중장년) 세대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 '미술관 속 마음 북소리(BOOK SORY)'를 2024년에도 진행한다.

'미술관 속 마음 북소리'는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여주미술관, 여주시민그림책방, 디자인창조, 여주민화협회 강사, 책배여강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학습공동체 및 평생학습강사가 중장년 세대의 정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1차 기수는 2024

년 5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2차 기수는 2024년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인생과 미술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며 캘리그라피, 민화, 미술 감상, 그림책 속 이야기 등을 통해 공감과 소통, 퇴직 전후 삶의 정리와 설계를 다루며, 수강생들은 손글씨와 그림을 활용하여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여주미술관에 전시할 예정으로 주 1회 총 12회로 구성했다.

수강생 모집은 1차 기수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기수는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여주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갖고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2024년 여주시 5060 역량강화 프로그램 미술관 속 마음 북소리 (BOOK SORY) 수강생 모집

1차 모집기간: 5월 1일 ~ 5월 8일 (매주 화요일 13:00~15:00)  
2차 모집기간: 7월 8일 ~ 7월 15일 (매주 화요일 13:00~15:00)  
모집대상: 여주시민(주민등록번호 304~309)

1차 접수기간: 5월 1일 ~ 5월 8일 (매주 화요일 13:00~15:00)  
2차 접수기간: 7월 8일 ~ 7월 15일 (매주 화요일 13:00~15:00)  
수강료: 무료

신청처: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여주시민회관 2층) ☎ 031-887-3326

#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이 주도해 수원화성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자"

## 수원시, 제4기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위원 98명 위촉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이 주도해 수원화성문화제를 우리나라 대표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26일 제4기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며 "시민들이 주인이 돼 축제를 만들어 가면, 수원화성문화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4기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위원 98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추진위원회는 수원화성문화제 진행에 필요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수원화성문화제 전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찬해 위원이 추

진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4기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찬해 공동위원장은 "수원화성문화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추진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화성행궁, 행궁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정조의 호심을 기리고, 수원의 역사·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주를 이룬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4~2025년도 문화관광축제'의 상위 3개 축제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2026 글로벌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김범상/기자



# 성남시, 이역만리 타국에서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 살려

## 베트남에서 뇌경색 치료 중인 성남시민 인계받아... 해외까지 뺨은 성남시의 복지지원망

4월 25일 오후 7시 무렵,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성남시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베트남에서 도착하는 입국자들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입국자 사이에서 환자 이송 침대에 누워있는 백모씨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자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곧장 백씨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갔다. 머나먼 타지에서 생사 오가던 성남시민이 그토록 그리웠던 고국 땅을 밟는 순간이다.

성남시는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성남시민인 환자 백씨를 신병 인수하여 성남중앙병원으로 입원 연계했다고 29일 밝혔다.

3년 전,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서 해외 근로자로 일하게 된 백씨는 작년 12월 말, 좌뇌 대동맥 경색으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후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편마비로 한쪽 팔과 다리 사용이 불가능해진 백씨는 지난 3월 경제적 문제와 현지 의료시설투자 부족 문제로 대사관 측에 귀국 희망 의사를 표시했다.

백씨를 도와줄 가족이나 지인이 한국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대사관은 이후 등본상 주소지인 성남시에 백씨에 대한 귀국 후 보호를 요청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직원들은 이후 약 한 달간 관내 복지원 연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실 구급차 후원과 성남중앙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백씨는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면서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공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사관과 성남중앙병원을 비롯한 여러 연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기에 처한 환자를 무사히 성남시까지 모실 수 있었다"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 화성특례시 100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화성특례시민헌장' 핵심 키워드 공모전 실시

## 화성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100년 미래 비전 제시 핵심 키워드 공모

화성시가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시민과 함께하는 '화성특례시 시민헌장' 제정을 위한 핵심 키워드 공모전을 실시한다.

'화성특례시민헌장'은 2001년 시 승격 이후 22년 만에 인구 100만 대도시가 된 화성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것으로, 특례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현재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과 시민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담게 된다.

시민들은 공모전에 참여해 '특례시민헌장에 포함할 핵심 키워드'와 '특례사무 발목을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며 화성특례시의 핵심 가치가 담긴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화성특례시민헌장을 함께 만들어 가게 된다.

공모전은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QR 코드 및 화성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화성시민 정책광장 자문단 대상 카카오톡 설문과 효마라내대화·벚꽃이 축제 등 행사장에서 현장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의 한 사람의 의견이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화성특례시민헌장 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새롭게 태어나는 화성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100년의 미래 비전 제시에 시민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시현/기자

2025년 1월 화성특례시가 출범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주세요!

내가 선택한 (시민헌장 핵심 키워드)는?

# 화성특례시 시민헌장 키워드 공모

실문기간 2024. 4. 29. ~ 6. 2. 참여대상 화성시민 누구나

응모방법 방법 ① 화성시민 정책광장 자문단(카키오톡) 방법 ② 우측 QR코드 접속 및 응모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영화 피크닉 광주시문화재단 '2024년 찾아가는 영화관' 개최”

오는 5월 10일부터 총 8회차에 걸쳐 광주시 야외 곳곳서 진행

광주시문화재단은 광주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2024년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5월 10일(금) 곤지암 도자공원을 시작으로 ▲영은미술관(5.31.) ▲분원백자자료관(6.14.) ▲중대물빛공원(6.28.) 등 4개의 장소에서 펼쳐진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을 통해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영화 피크닉”이라는 컨셉으로 진행되는 2024년 상반기 프로그램은 오는 5월 10일(금) 곤지암 도자공원을 시작으로 ▲영은미술관(5.31.) ▲분원백자자료관(6.14.) ▲중대물빛공원(6.28.) 등 4개의 장소에서 펼쳐진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별도 신청을 통해 장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 등 한층 풍성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광주시문화재단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영화 상영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 하남시, 악성 민원에서 공무원 보호한다...민원처리 시스템 개선도 병행

22일 주간회의서 '악성 민원 대응 직원 보호 방안' 논의

하남시가 협박과 폭언을 일삼으며 동일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응대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

수 있도록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 민원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국장·단장·소장·원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월요 주간회의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사태가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도 나선다.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과 민원대기현황 시스템 구축 및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제부서 등과 협의해 하반기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되도록 힘쓰는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문화원 제2기 문화아카데미 최고위과정' 특강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5일

'고양특례시의 오늘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주제로 강연

고양문화원 대강당에서 '고양특례시의 오늘,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주제로 특 별강연을 진행했다. 고양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제2기 문화아카데미 최고위과정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연에는 최고위과정 수강생뿐만 아니라 문화원장, 부원장, 이사 등 다수의 문화원 임원들도 함께 했다.

언급하며, “고양시가 안고 있는 많은 규제(난제)들 속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강에서 2022년 7월 민선8기 시작부터 씬 없이 뛰어온 결과 고양특례시가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관련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 밖에 제3전시장 완공되면 현재 세계 60위권에서 20위권의 규모를 갖 추게 될 킨텍스와 사동팔달의 광역교통망 확충, 최근 국가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등을 소개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영기/기자

### 광명시, 웰다잉 지도사 2급 과정 수강생 모집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 웰다잉 문화 확산 위한 전문가 양성 목적

2024년 광명시 웰다잉 지도사 2급 양성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 내용, 기간, 장소,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 제공.

광명시가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는 '웰다잉 지도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웰다잉 지도사 양성 교육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삶의 존엄성을 지키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주 화·목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한국 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자격증 발급 비용 5만 원은 본인 부담이다.

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이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위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동일/기자



제27회 2024 광주왕일도자 컨퍼런스. 2024. 5. 3. (금) - 5. 15. (수) 곤지암도자공원 일원 13일간. 개막식 5. 4. (토) 16:00. 20th WASBE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 2024. 7. 16. - 7. 20.



# 전남도, 우리 농산물 안정적 판로 개척 온힘

##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연계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농업인과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전남 농산물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남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가공용 농산물 계약재배 및 납품을 통해 전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년간 971농가를 대상으로 1천 875ha를 계약 재배해 2만 3천 톤을 생산, 331억 원의 거래 성과를 냈다.

올해는 생산자단체 15개소, 식품기업 14개소를 선정해 327농가에서 6

천467톤의 농산물을 기업에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농산물 생산자단체에는 교육·컨설팅,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참여 농가 수에 따라 최대 4천만 원, 식품기업에는 제품홍보 및 신제품 개발 비용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연결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식품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순천시, 전국 웰니스노르딕 워킹 대회로 걷기 좋은 도시 선보여

전국 걷기문화 확산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열다.

순천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2024 웰니스 노르딕워킹 대회가 강원도 홍천, 인천, 대전 등 20개 도시에서 508명이 사전 신청 접수하여 행사에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엘리트부(5km) 205명과 비기너부(1km) 303명이 접수하였으며 생태수도 순천의 천혜의 자연(정원)과 국가하천 동천을 온전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도록 오전그린광장과 순천만 습지(홍내교)를 연결하는 2개 코스로 운영됐다.

비기너(초보자)부에 참여자의 68%가 접수되어 웰니스 노르딕 워킹을 배우려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르딕 워킹 풀을 사전 준비하여 초보자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노르딕워킹 기본자세, 스트레칭법, 올바른 걷기 자세 등 일상생활 속 건강법을 교육해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대행사로 삼림치유사가 직접 플루트 연주를 통해 음악치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향취유 요법으로 향낭 만들기, 허브 벨레티치제 만들기 코너가 운영되어 참여자들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노르딕 워킹을 처음 접한 참여자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너무 좋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은 것 같아 앞으로 배워서 매일 가족들과 함께 걷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국에 웰니스 노르딕 워킹을 즐기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걷기를 실천하는 인구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건강한 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순천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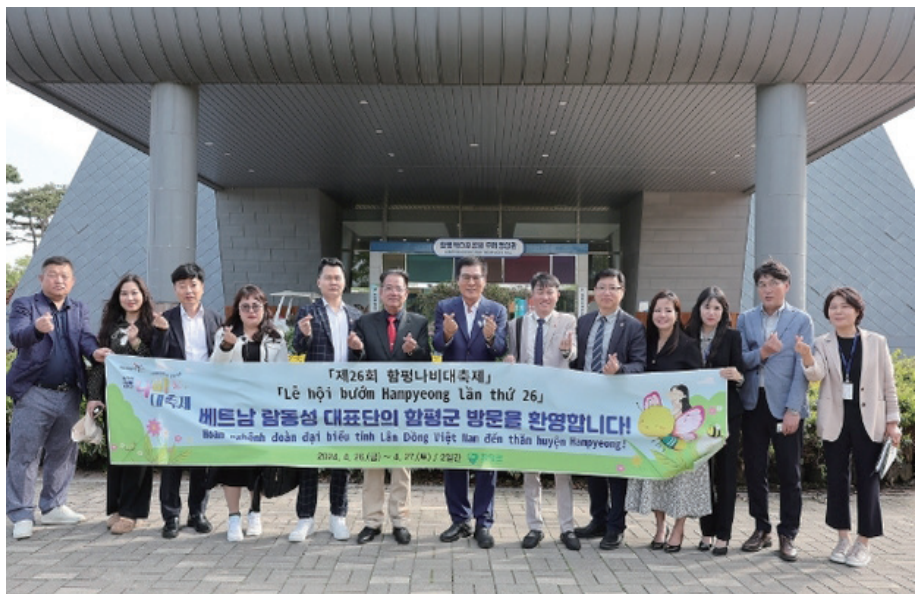
한편, 노르딕 워킹(Nordic Walking)은 자연에서 즐기는 유산소 전신 운동으로 자세 교정과 체력 향상, 기분전환에 탁월한 운동이며, 순천은 정원, 숲, 향, 한방, 갯벌, 해양 등 천혜의 자연이 뛰어난 웰니스 도시로 노르딕 워킹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도시이다.

이승준/기자



# 함평군, 베트남 람동성 대표단 방문...글로벌 도약 '시동'

##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식 참석 및 주요시설 방문



전남 함평군은 “베트남 람동성 대표단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식 참석과 자매결연 체결 등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함평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조영 국옥 안(Duong Quoc Anh) 람동성 무역 및 관광투자 진흥센터 국장을 비롯한 대표단 10명은 26일 오후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이상의 함평군수를 만나 상호 중점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표단은 27일 오전 함평양서 파충류생태공원, 주포한옥마을 등 군 주요 관광지를 시찰했으며, 오후에는 함평읍 에스엘에스팜(대표 홍선주), 대동면 나비랑탈기랑(대표 김영각) 등 우

수 농업시설을 방문했다. 특히 대표단은 함평군의 앞선 농업시설과 시스템 등을 접하며 그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향후, 군은 베트남 람동성과 올해 6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전남세계문화관광대전 선포식에도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베트남 람동성 대표단의 방문 덕분에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 마련으로 국제경쟁력 있는 함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 “1등급 한우+로컬푸드 꾸러미를 5만원에”... 나주시, 가정의 달 특가전

##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나주몰'서 한우·한돈과 로컬푸드 농산물 구성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나주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상품 한우·한돈 꾸러미 특가전을 선보인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가전은 나주축협에서 도축한 1등급 품질의 한우·한돈과 신선한 산지 농산물 5~9종으로 구성된 푸짐한 로컬푸드 꾸러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한우 꾸러미는 꽃등심 300g·부채살 150g 기준 5만원, 한돈 꾸러미는 삼겹살 400g·목살 400g을 기준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꾸러미는 나주물 단독 예약 상품으로 온라인 구매 고객에 한해 5월 중 총 3회(2일, 7일, 9일)에 걸쳐 배송된다.

구매 신청일 기준 4월 30일까지 주문한 상품은 5월 7일에, 5월 3일까지 주문한 상품은 5월 9일에 각각 배송

한다. 소비자재겐 무료배송 혜택과 더불어 2023년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쌀 브랜드로 선정된 '왕건이 탐낸 쌀'(500g)을 이벤트 상품으로 제공한다.

나주물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착한 먹거리 및 어버이날 효(孝)선물 특가전'을 진행하고 있다.

쌀, 육류, 숙성 홍어, 유정란, 요거트, 장류 등을 최대 2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풍성한 나주로컬푸드 식재료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식사로 가족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물가 속 알뜰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로컬푸드 이벤트를 마련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나주몰 한우, 한돈 꾸러미 세트  
나주축협(1등급 한우, 한돈) & 나주로컬푸드와 함께합니다.  
혜택 쪼갬다 가격  
돼지고기(한돈) 꾸러미 세트  
삼겹살(나주축협): 400g  
목살(나주축협): 400g  
그 외 9종류  
※받은 특별상품입니다.  
(원산지: 전남 나주)  
3만원 (무료배송)  
www.najumall.kr  
최고기(한우) 꾸러미 세트  
한우꽃등심(나주축협): 300g  
한우부채살(나주축협): 150g  
그 외 5종류  
※받은 특별상품입니다.  
(원산지: 전남 나주)  
5만원 (무료배송)  
나주몰 꾸러미 상품은 예약 판매 상품입니다. (5월 2일, 7일, 9일 발송)

# 남원시, 요천 통합하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광한루원 앞 포차거리, 공원 조성으로 시너지 도모

남원시는 지난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요천 통합하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홍수와 재해를 예방하는 치수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조성하는 치수사업은 지방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치수사업은 전액 국비 312억원을 투입하여,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정비하는 육역화 대책, 도통 인도로 건너면 홍수터 조성, 요천 지류하천 교량 4개소, 토사 퇴적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보의 부분 가동보 8개소, 배수시설물 개량 등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시행한다.

치수사업은 지방비 250억원을 투입



하여, 춘향교 ~ 승사교 구간에 포차거리 조성, 승사교 하류에 시민공원과 파크골프장을 위한 둔치 조성 등을 남원시에서 추진하게 된다.

우리시에서는 2023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2024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 전구간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하천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해왔다.

이번 착수 보고회는 사업의 완성도 제고와 실시설계 방향에 대한 정립을 위해, 남원시장을 필두로 16개 부서장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시각으로 실효성있는 의견을 논의했다.

이남출/기자

# 강진군 “보고 싶어라 그리운 님아, 마랑에 가고싶다”

2024년 마랑놀토수산시장 개장

지난 27일, 강진군 마랑놀토수산시장 개장일에 약 7,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올 한해도 대박 행진을 예고했다.

개장 행사는 '3最 다짐·3無 약속' 실행 선언문 낭독과 성공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으며 목포 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현장 녹화방송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볼타는 트롯맨 TOP1' 손태진, 배일호 이소나 외에도 문초희, 풍금, 김현진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마랑놀토수산시장은 2015년 개장 이후 2023년까지 105만 명 이상이 다녀가며, 총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행사기간 중 운영 및 판매부스는 5종 29개소로, 횃집 등 음식점(4), 수산물 코너(7), 견어물 판매장(2), 길거리음식(6), 할머니장터(10)에서 싱싱한 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매주 토요일마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군은 체형, 의상, 포즈 등 다양한 요소를 변경해 멋진 프로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포토 부스와 무중력 퍼포먼스, 공중 부양 포토존을 새롭게 선보이고 LED바다분수와 미디어 파사드 설치로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MZ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토요일에도 댄스공연, 퓨전국악, 마술쇼 및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관광객 노래자랑을 통해 방문객들이 숨겨진 재능과 끼를 표현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즐길 거리를 확대했다.

마랑 전담대 카페에서는 로봇커피머신이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마랑의 명물이자 천연기념물인 까막섬, 고금대교 등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컬러데이를 통해 특정한 색의 옷을 입고 전담대 카페를 방문하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강진군 마랑면 미향로 중방파제 내에서 운영되는 마랑놀토수산시장은 최고 신선, 최고 품질, 최고 저렴의 3최(最)와 외국산, 비브리온, 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의 운영전략을 고수해오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행사로 이름을 날리며, 매주 토요일마다 마랑향을 찾아오는 마니아층을 양산하고 있다.

당초 강진군에는 고급대교 신설로 마랑 상권이 침체될 것을 극복하기 위해 토요일마당을 만들었고, 2015년, 강진군 4대 핵심 프로젝트사업 중의 하나로 '마랑놀토 수산시장'을 선정하는 등, 앞선 전략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빼놓을 수 없는 강진의 명소로 마랑을 성장시켜왔다.

특히 마랑향은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다시 찾고, 또 그들의 입소문을 통해 점차 방문객이 늘어가며 탄탄한 수요층을 만들어왔다는 평가이다.

이번 마랑놀토수산시장은 27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며, 병영불굴불파는 지난 22일부터 병영시장 일원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김용구 상인회장은 “마랑놀토수산시장을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에게 올해도 신선하고 맛 좋은 수산물을 친절히 서비스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군수는 “올해는 강진반값 가족여행을 통해 마랑놀토수산시장을 그 어느 해보다 가성비 높게 즐기실 수 있다”며 “금요일은 병영 불굴불파에서, 토요일은 마랑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군에서 인구 늘리기와 동일할 경제효과를 만들기 위해 역점 추진 중인 '강진 반값 관광 여행'의 혜택이 더해지며 그 어느 해보다 마랑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추윤호/기자



# 전북자치도, 금강유역 물관리 현안 논의위해 관계기관과 머리 맞대

## 농업용수 확보, 새만금수질개선, 물산업 발전방안 등 논의



전북자치도가 금강유역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전북 물포럼과 함께 전북 물관리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제2차 유역물관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관기관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금강유역 및 지역 현안을 주제로 금강

유역 시도 순회 포럼을 결정하고, 첫 번째 지역으로 전북자치도를 선정해 이번 포럼을 추진했다.

김건하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강동희 전북 물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 전북물포럼 위원, 관계기관 등 물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린 논의를 벌였다.

포럼에서 전북지역 물관리 발전방향

에 대한 논의로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전북대 장태일 교수), 새만금호 수질개선 방안 모색(전북대 광동희 교수), 전북자치도 물산업 활성화(전주대 유규선 교수) 총 3가지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장태일 전북대 교수는 전북지역은 다양하고 복잡한 하천과 수계를 가지고 있어 농업용수의 확보 및 관리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수리시설을 통합·재편하고 하천-저수지 등 유역 간 연계로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동희 교수는 감시체계를 구축해 영양염류인 질소, 인의 수질인자 유입차단, 염분 농도경사, 무산소층 등 수리환경 및 호소생태 관리로 건강한 새만금호를 조성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규선 전주대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전라산업의 연구개발을 중심

으로 물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대 물포럼 공동대표인 강동희 교수는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해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과 금강유역환경청(대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북자치도 내의 섬진강과 금강유역 하천 업무를 전북지방환경청으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직속법정위원회로, 금강유역의 수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심의·의결, 이행평가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금강유역의 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최근 가뭄, 홍수재해 등으로 물 자원의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전북지역 '물관련 현안과 개선방안 모색'의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정확한 진단과 다채로운 해결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목포시, 「삼학도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 결정

## 민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과 사업수행능력 확인 불가

오늘 박홍을 목포시장은 지난 2022년 1월 선정한 삼학도호텔 건립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협약 해지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저(주)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스카이원레저(주)와 컨소시엄 참여사(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영디엘엔피에프비이(주)와 2022년 4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2월 민간사업자의 호텔설립 관련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목포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절차를 진행했는데, 관련 실과와의 협의 중 해당 사업부지가 재해취약 지구라는 점이 부각됐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방재(시설)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등 보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협약 해지 처분 통보일인 2024년 4월 9일 전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이후의 행정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시는 2023년 6월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제출했던 부동산 수익권증서를 변경 요청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존 제출서류와 변경요청 서류 모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는 즉시 반려했다.

민간사업자는 목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제시한 사업비 3,500억원의 5%인 175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부동산수익권증서로 제출했었다.

그러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목포시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제출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자산가치는 69억원 정도로 평가됐으며,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175억원보다 106억원이 부족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경우 담보물 157개 중 154개가 2순위권 담보물로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대체 납부방안을 7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협약이행보증금이란 민간사업자의 사업중단 또는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비책이며, 민간사업자의 사업 수행의지 및 자본조달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로, 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협약서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체 납부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 사실확인을 위한 재무적 출자자의 금융약정서, 5성급호텔 유치를 위한 참여호텔측의 투자관련 결정서 등의 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는 이런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없음에 따라 심도있는 내부 검토와 심의, 행정절차법의 청문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대체 납부방안 및 요청자료 미제출은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협약 위반사항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협약 위반사항으로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최종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협약 해지를 확정해 2024년 4월 9일 사업협약 해지 처분을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홍을 목포시장은 "앞으로 삼학도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생태형 테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언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삼학도를 공익적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진도군, 2024년 해양관광대상 자치단체부문 대상 수상



진도군이 (사)한국해양관광학회가 주관한 춘계학술대회에서 2024년 해양관광대상 자치단체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해양관광대상은 자치단체와 기업, 개인의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자치단체와 공공기

관 부문, 체험관광부문(민간대상), 기업경영부문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사)한국해양관광학회는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지난 2006년부터 해양관광 분야의 학술활동을 하며 해양관광과 관련 학문의 연구와 교류를 촉진하고 학문의 발전과 응용에 공헌하고

#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 등 우수사례 선정

있다.

진도군은 국가지정 명승지 제9호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2.8km가 열리는 자연현상을 활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축제로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는 유럽, 미국, 일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축제인만큼 진도군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양관광산업 우수사례 등의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진도 신비의바닷길 축제와 함께 명랑 해상 케이볼카, 진도 관광유람선, 진도와 제주를 잇는 산타모니카호, 죽림어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진도 죽림어촌체험마을이 체험관광부문 민간대상에 선정되는 경 gesta를 맞았다.

죽림어촌체험마을은 해송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장관을 이루고 개매기 체험과 조개잡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어 주로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의 아름다운 해양 관광자원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머무는 관광 진도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 해양관광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관광정책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진/기자

# 완도군, 전남 정원 페스티벌 5월 1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 대한민국 대표 해변 정원' 주제로 해변공원서 진행

'2024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은 정원 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행사로 지난해 국내 최초로 완도 해변공원에서 열린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도 완도군에서 연속 개최하게 됐다.

군은 반복적인 행사가 되지 않고 완도만의 특색 있는 해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참신한 주제와 스토리를 발굴하여 행사를 기획했다.

올해는 총 33개소의 정원을 조성했다.

'대표 정원'은 '치유의 섬 완도'의 이미지에 맞게 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치유하는 콘셉트의 '트리 티 하우스

(Tree Tea House)'로 꾸며졌다.

'작가 정원'에는 초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참여 정원'에는 '타이니 하우스 가든', 즉 '작은 집과 같은 정원'으로 각기 다른 특징이 있는 30개소의 정원이 옹기종기 모여 정원 마을을 이뤘다.

입구에는 '완도 캐슬', 커다란 토피어리로 꾸며지는 '빌리지 센터', 바다와 정원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웨딩 로드' 등이 조성돼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물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이 가족의 달인 5월에 개최되는 만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 행사도 준비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미니 정원·가든 모

자·플라워 액자 만들기와 식물 관리부터 병해충까지 처방해 주는 '정원 119', 정원과 어울리는 시화 작품 전시, 캘리그라피 전시·체험 등이 있다.

5월 3일 19시에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공동으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가, 5월 4일 11시와 14시에는 두 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을 위한 '뽀로로 매직 심어롱 쇼'가 진행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불거리와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준비했다"면서 "국내 유일 치유의 섬 완도에서 정원 페스티벌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영을/기자



# 보성군,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념 한국차박물관 특별전 개최

## 홍선대원군, 고종황제,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의 차 도구 선보여

보성군은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한국차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제 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념 특별전인 '대한제국 황실가(家)의 차 도구 전(展)'(Korean Imperial Family's Teawar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 개막행사는 5월 5일 오전 11시 한국차박물관 로비에서 진행되며, 제 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인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집중 운영해 축제 관광객뿐만 아니라 박물관 방문객에게도 특별한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고종황제의 증손인 이준 의친왕 기념사업회장이 참석해 대한제국 황실가의 역사와 차 문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등 풍부한 기획 행사도 준비돼 있다.

이번 전시는 홍선대원군, 고종황제,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 이방자 여사, 이준 황손 등 대한제국 황실가에서 실제 사용했던 차 도구와 서화, 조선왕실가에서 500년간 내려오던 진전다례, 별다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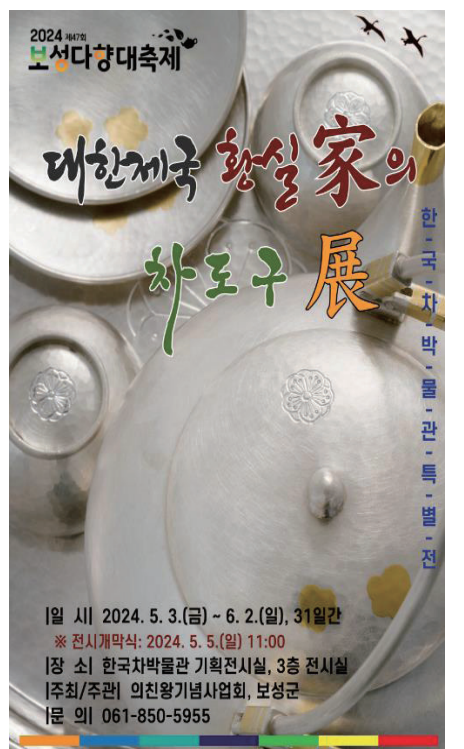
주요 전시품은 홍선대원군 괴석묵란도, 윤현궁 추사서첩, 사동궁 은다구 일체 등 74건 120여 점으로 윤현궁(홍선대원군 가문), 사동궁(의친왕 가문), 낙선재(영친왕, 덕혜옹주) 3곳에서 대어한 차문화 유물들이다.

군 관계자는 "황실 후손들에게 면면히 전해 내려온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가의 차(茶)문화를 일반민들에게 공개하는 매우 유익한 전시가 될 것"이

라며 "보성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대 차(茶) 주산지인 보성군에 위치한 한국차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층 차문화실, 2층 차역사실, 3층 차생활실, 5층 복라운지로 구성된 차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차(茶) 전문 박물관이다.

최원영/기자



# 구례군,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선비정신' 열린강좌 개최



구례군은 지난 25일 섬진아트홀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우리 시대 필요한 선비정신'을 주제로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

국립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정종민 교수를 초빙하여 동양철학사와 연계한 선인들의 실천적 삶과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의 관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자세 등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인문학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강연은 ▲ 구례의 화엄사, 사성암, 운주루 등 문화재가 가진 유형, 무형의 가치를 더한 스토리텔링 ▲ 매천 황현 선생, 동편제 시조 송흥록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며 빠

게 변화하는 스마트 시대의 편리함에 묻혀 우리가 잊고 사는 구례의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되짚어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옛 선비들의 충, 효, 예 정신의 덕목을 강조했다며, 아름다운 자연, 찬란한 문화유산을 소유한 구례가 문화와 예술, 선비정신을 배우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리산을 품은 구례! 예(禮)를 구하는 구례! 살기 좋은 예향의 도시 구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 경북 서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들어선다!

##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비수도권 유일 2개소 운영



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에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시행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센터에서는 난임부부, 임신부, 양육목 등을 대

상으로 심리상담, 정서 지지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울, 경기와 함께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2개소를 확보했다.

도는 2021년 10월부터 운영하는 '경북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안동의료원 수탁)'에 이어 2024년 하반기에 '경북 서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추가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경북 서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김천의료원에서 수탁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센터장)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부센터장)를 중심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배치해 난임부부, 임신부, 양육목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신건강 의료지원 등을 제공한다.

경상북도는 상담센터 추가 확보에 따라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과 상담 대기 시간 단축, 대상자별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고위험군

을 조기 발굴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들의 편익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상담센터 추가 확보를 통해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 가족들에게 큰 희망과 지지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도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추진과 함께출산율 2.1명 달성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기준 국내 난임진단자는 24만여 명에 이르며, 산후조리 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7년 50.3%에서 2020년 52.6%로, 우울 위험군 비율도 2017년 33.9%에서 2020년 4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글로벌 물산업 신시장 개척 교두보 마련!

## 대구광역시, 한국환경공단, 한국물기술인증원 참가

대구광역시는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말레이시아 물산업 전시회(ASIAWATER 2024)에 한국환경공단, 한국물기술인증원, 물기업 9개사와 함께 대구 물산업 홍보관을 운영해, 189건 2,112만 불(약 290억원) 규모의 상담 매칭을 이끌어냈다.

대구광역시는 동남아시아 물산업의 핵심 수요처로 각광받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시회를 통해 국내 강소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물산업 수요기관 및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홍보하고 현지 마케팅 지원 및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ASIAWATER 2024는 전 세계 51개국 16,000여 명이 참가하는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수처리 전문 전시회로,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인근 동남아 국가의 참여도 활발하다.

대구 물산업 홍보관은 동남아 시장을 타깃으로 설정하고, 한국환경공단(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 한국물기술인증원과 공동으로 운영해 전시효과를 극대화했다.

대구광역시는 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SIRIM(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 NSF(미국 국가표준개발기관), 포스코엔씨, DL이앤씨, 삼성ENG 등 주요 물 관련 기관과 현지 진출 건설사를 대상으로 물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물산업 활성화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이한일 총영사),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물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 밖에도 국내 물기술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기술 발표회도 열어 참여기업들의 우수 물기술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참여기업들 또한 189건 2,112만 불(약 290억 원) 상담 매칭이 이어져 추후 계약 성사를 기대하게끔 했다.

특히 블루센(주)은 말레이시아의 환경, 석유화학 분야 대기업인 PICORP 그룹사, 폐측제어 전문기업인 eFluid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수도 쿠알라룸푸르 등 말레이시아 상수도 분야 스마트 물관리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PICORP 그룹의 중점 사업지역인 사우디 등으로 공동진출하기로 협약했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대구관 운영을 통해 지역 물기업의 동남아 신시장 창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말레이시아의 물산업 기관 및 현지 진출 대형 건설사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등 현지 맞춤형 전시회의 성공적인 민관협력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동남아 물산업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해 기간 진출 기반을 다져왔으며, 올해 대구관 운영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흐름을 반영한 해외 진출 전략을 구상해 물기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은 좋겠다!” 부산시의 선도·우수정책 집중 홍보 캠페인 추진

## 시민이 만족하고 부산이 자랑하고 싶은, 그리고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선도·우수정책을 '부산은 좋겠다' 브랜드를 활용해 집중 홍보

부산시는 앞으로 두 달간 민선8기 부산의 대표적인 정책을 브랜드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집중 홍보하는 시 선도·우수정책 집중 홍보 캠페인 '부산은 좋겠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좋겠다'는 ▲부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선도정책과 ▲시민이 만족하고 부산이 자랑하고 싶은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선도·우수정책을 '부산은 좋겠다'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집중 홍보하는 캠페인이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전 국민에게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부산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먼저, 시는 부산(busan)의 로마자 첫 글자 'b'와 최고의 의미인 엄지를 활용해 브랜드이미지(BI)를 제작하고, 시의 선도·우수 정책 중 시민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접형 정책 8건을 '부산은 좋겠다'라는 캠페인 브랜드를 활용해 우선 집중 홍보한다.

8건의 생활 밀접형 정책은 ▲대중교통 6 부터 12세 어린이 요금 무료 ▲부산형 통합 늘봄 ▲글로벌 미식도시



부산 ▲영도 마리노 캠핑장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의료버스 ▲장애인전용 시트투어 버스 나래버스 ▲도시집수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시 공식 누리집 내 별도의 캠페인 페이지를 구축해 각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또한, 시 전역의 버스 가림막 정거장(헬터), 도시철도 등을 포함, 케이티역

스(KTX) 열차, 서울역, 수도권 도심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전역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도 우리 시 선도·우수정책을 집중 홍보한다.

4월 말 부터 ▲6 부터 12세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 정책은 '부산은 좋겠다' 부산 대중교통은 온 세상 어린이 모두가 무료'라는 선전 구호(캐치프레이즈)로 집중 홍보를 시작하며, 이후 나머지 정책별 집중 홍보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16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공무원 초청 부산시정 설명회'에서 먼저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정부 공무원에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별도로 기획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시정에 대한 관심과 국비 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학 시 대변인은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선도정책과 함께 시민이 만족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선도·우수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적극 홍보해 전국 어디서나 '부산은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며, "각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은 좋겠다' 캠페인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청송군,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운영

청송군은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8282민원처리 기동반'과 더불어 생활 속 위생상태를 개선해 주는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은 세탁과 건조가 가능한 특수차량으로 8개 읍·면을 순회하며 가정에서 빨래하기 어려운 부피가 큰 이불을 세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살균과 건조까지 해주어 주민들의 위생상태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재난현장 복구에 활용하여 지역복지증진에 힘을 계획한다.

특히, 청송군새마을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세탁물을 직접 수거하

고 배달해 주며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에 참여하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권동준 청송군새마을회장은 "혼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무거운 이불빨래를 깨끗하게 세탁해주어 고맙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봉사활동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동빨래방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보건소,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자조모임 운영



영양군 보건소에서 오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매주 월, 화) 금연장려 및 금연환경조성의 일환으로 관내사업체와 함께하는 '이동금연클리닉 자조모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금연클리닉 자조모임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금연상담사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금연 서비스 제공 및 지지적 코칭을 통해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직장 내 금연분위기 확산을 유도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개소에서 올해는 2개 사업장(영양군고추유통공사, 멸종위기종복원센터)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동금연클리닉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12주간 8회의 개인별 1:1클리닉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지급 ▲구강상감 ▲스트레스관리법 ▲영양·운동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100% 출석을 완료한 금연 성공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또한 12주 집중관리 후, 6개월간 지속 상담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장여진 영양군 보건소장은 "많은 직장인들이 금연에 도전해 개인의 건강향상은 물론 사업체 내에 금연문화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장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금연 홍보로 직장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 봉화군 호우피해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마음회복 프로젝트 진행

## 내 곁의 호우(好友) 심리치유 프로그램 실시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호우피해 지역주민과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내 곁의 호우(好友)사업'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주관으로 시행하는 '내 곁의 호우(好友)사업'에 선정돼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 6월~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겪은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을 터놓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해 봉화군 관내 집중호우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수해피해 지역주민과 수해복구 협정을 지키며 같이 아파하고 걱정 해준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김병남 이사장은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준 자원봉사자들 모두 고생하셨다."며 "언제든 힘든 상황이 생기면 봉화군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할 것이요, 항상 곁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 경북도, 다국적 바이어와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 확대 나서...

### 25일, 도내 72개사, 해외구매자 9개국 46명(현장27, 온라인19) 참가

경북도는 25일 경주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미국 등 9개국의 구매자를 초청해 '2024 상반기 해외바이어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열었다.

이날 상담회에는 도내 중소기업 72개사, 해외 구매자 46명이 참가해 총 2천7백만 달러의 수출상담 및 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안동중가문화원(안동, 생강청), 기남금속(경산, 맨홀) 등이 미국과 필리핀 바이어와 현장에서 236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뉴질랜드 등 27명의 해외 구매자와는 현장에서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19명의 구매자와는 화상 상담장을 구축해 온라인 상담을 동시에 운영했다.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미국 구매자 대표는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 식품을 비롯해 캐나다 대형 유통채널 등을 통해 입점시키고 있으며, 중남미의 한류열풍



에 맞춰 경북제품의 입점과 마케팅, 유통까지 경북 기업체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뉴질랜드 구매자 대표도 "식품과 화장품 등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의 대표들과 대면으

로 진행한 상담에 만족했고,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6개국에 파견된 경북도 해외 통상 투자 주재관들은 현지 구매자들을 초청했고, 도내 수출 유망 우

수제품을 대상으로 현장 및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상담하도록 지원했다.

한편,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해외 통상 투자 주재관과의 간담회에서 경상북도 해외사무소의 운영상황과 애로점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주재관들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사무소가 시장개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수출증대 밑거름이 되겠다"고 했다.

경상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수출상담회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내 우수 상품의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포항시살고 싶은 포항 만들기! 포항의 미래 이끌 청년들에게서 해법 찾는다

### 이시장, "진정한 지방시대 꿈꾸는 포항의 도전에 청년들이 함께 해달라"

포항시는 지난 26일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청년 주도형 정주환경, 포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Pohang Youth Forum 2024'를 개최했다.

포항시와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청년이 주도해 지역 청년의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청년세대 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앞서 이강덕 시장은 표창장 수여를 통해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이강덕 시장은 "청년이 주인공인 청년포럼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한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완성하고자 하는 포항의 담대한 꿈과 도전에 청년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무총리 산하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 주재원 한동대 교수, 포스텍 조윤경 학생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박주희 사무총장은 '청년정책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주제로 앞으로의 청년정책은 새로운 위기 청년을 돕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로 설계해야 된다고, 청년정책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때 바로 청년 친화 도시의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주재원 한동대 교수는 '청년 일자리와 지역의 경쟁력'을 주제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30세대 여성들의 일자리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지역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경 포스텍 학생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MZ세대 특유의 입담을 선보이며 포스텍 입학 후 포항에서의 생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이종승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분과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와 권혁원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청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을 찾은 100여 명의 청년들이 가졌던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 진솔하게 대답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는 오대필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남구 지부장의 자장면 재능 기부로 포럼에 참석한 청년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통하는 네트워킹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어 3부 토크콘서트는 개그콘서트 '소통왕 말재할매'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개그맨 김영희와 정범균을 초청해 스태นด์코미디를 통해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그맨 김영희는 재치 있고 진심 어린 답변으로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했다.

손동광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국 청년센터의 허브 역할을 하는 청년재단이 이번 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사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박주희 사무총장은 "청년과 정책, 지역과 중앙을 잇는 청년정책의 파트너로서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정책 포럼은 포항의 미래와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해 매년 1회 개최하고 있다.

윤태용/기자



# 경주시 시가지 아름다운 봄꽃 물결로 넘쳐

## 지역 화훼농가 소득증대 및 도심 환경개선 일석이조

경주시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지에 화단, 화분대 등에 대대적인 봄꽃 식재사업을 전개한다.

올해는 1억 6천여만 원으로 시가지는 물론 대릉원, 경감로, 황성공원, 황금정원 이음길 등에 가로화단 및 화분대에 4월까지 팬지, 비올라 등 봄꽃 9만5천여본을 식재하고 특히 경주 대표 관광지인 보문단지 입구 보문교삼거리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염원을 담은 꽃탑을 세워 관광객들에게 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아름다운 읍면동만들기 조성을 위해 10억 예산으로 상·하반기 읍면동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유희공간이나 시유지를 활용하여 도시 미관을 개

선한다. 특히 시는 지역 화훼농가 육성과 소득증대 및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꽃 생산 확대 등을 위해 식재에 필요한 재료는 가능한 지역 생산 화훼업체에서 구매 하는 등 농가소득과 도심 환경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춘시즌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도시 분위기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족, 연인, 친구 등 많은 방문객들이 마음껏 힐링 하고 경주에서 좋은 추억을 가득 담아 가길 바란다"며, 아름다운 꽃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 경산시, 양성평등 사회 실현! 경산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 18개의 사업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확정

경산시는 26일 시청 별관1 회의실에서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2023년 추진 내역 및 2024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신규사업, 공약사업, 핵심 이슈인 저출산 관련 사업 등 각 부서에서 발굴한 18개의 사업을 심의 확정했다.

확정된 사업은 5월에 전문가와 사업담당자 간 1:1 컨설팅을 진행하고 성인지 관점의 개선안을 도출해 적극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강학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정책 추진 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송광삼/기자



# 안동시,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시행

### 픽업부터 병원동행,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로 돌봄 공백 해소

안동시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부모를 대신해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픈아이 돌봄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는 전담 돌봄교사가 아동 픽업부터 진료, 귀가까지 병원 진료의 전 과정을 동행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녀의 병원 진료로 휴가를 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모이소 경상북도' 앱을 통해 회원 가입 후 인적사항, 진료시간, 아동 픽업 장소 등을 입력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돌봄교사가 전용 차량으로 아이가 있는 곳에 방문해 부모가 원하는 관내 지역 병·의원에 아이와 동행한다. 병원 진료 후 아이상대 및 진료 결과는 우선으로 부모에게 안내하며 집이나 학교

등 원하는 장소에 아이를 데려다준다.

이용대상 아동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맞벌이, 취업한 한부모,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의 4세 이상 유아 및 초등학교생이며, 신청은 평일 월~금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고 이용시간은 당일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1~3시, 3~5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며 병원비와 약제비는 부모가 부담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안동YMCA에서 가장 운영하는 아픈 아이돌봄**

맞벌이 부부, 근로를 하는 중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안동YMCA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서비스 신청 → 차량 픽업 → 병원동행 → 귀가지도 → 보호자에게 알림

**이용대상** 맞벌이 가정, 취업한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이용연령** 4세 ~ 초등학교생 (2020년 이전 출생자)

**이용금액** 무료 (진료 및 약제비 본인부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이용시간** 평일 월~금 운영  
※토, 일요일, 근로자의 날(5.1),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제외  
- 오전진료 서비스시간 09:30~11:30 / 15:30~17:30  
- 오후진료 서비스시간 13:00~15:00 / 15:30~17:30 (\* 아동기가 종료 시간)

**진료범위** 가벼운 질환(감기, 복통 등) 진료 및 약 처방  
- 응급질환, 병중 감염, CT, MRI,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 진료 불가  
- 사전조율이 가능하고 약물 과민반응이 우려되는 진료 불가

**진료병원** 경상북도 안동시내 소재 병원

**신청방법** '모이소 경상북도' 모바일 앱 설치 후 신청  
- 신청시간: 07:00~16:00 평일신청가능 (최대 1일 3명)

**이용문의** 안동YMCA 아픈아이돌봄 054)858-8219

# 예천군 드림스타트, 과일타르트 간식만들기 체험 실시

### 과일타르트 만들며 아동 성장 도와

예천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7일 청소년 수련관 3층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과일타르트 간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체험은 아동들의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여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체험에 앞서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은 먹기 좋은 크기로 과일 타르트를 만들었다.

이날 참여한 아동들은 과일 타르트 만드는 데 모두 열중했으며 그중 한 아

동은 "색이 다른 과일을 올려 예쁜 타르트가 완성됐다"며 "내가 만든 게 너무 예뻐서 엄마, 아빠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현자 주민행복과장은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동들의 정서적 성장과 자존감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



해 1세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 5급 승진자들, 전국 1·2위 동시 배출!

## 5급승진리더과정 전국 446명 수료, 경북도에서 1·2위 휩쓸어



이철우 도지사가 한결같이 강조한 "변해야 산다, 도청부터 변해야 한다. 변하려면 공부해야 한다"는 신념이 반영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경상북도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주관 5급 승진리더과정에서 전국 1위와 2위를 동시에 배출하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5급 승진리더과정은 중간관리자로서의 정책기획 및 리더십 역량을 증진하는 필수 기본교육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6주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446명의 5급 승

진자들이 참가한 이번 교육에서 경북도청 소속 공무원인 이현지 사무관이 1위, 장도환 사무관이 2위를 차지하며 전국 1.2위를 휩쓸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이철우 지사의 도정 운영 철학에 따라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매주 화요일 새벽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하는 화공특강은 지난 6년간 278회가 개최되며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일깨우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도청 현관에 자리 잡은 열린 도서

관'K창'은 지식과 아이디어가 늘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업무 습관과 성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도청 공무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도정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각종 혁신적인 정책발굴과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정 핵심과제인 저출생과 재정에서 도 큰 성과와 방패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학습과 전문성 향상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영덕군, 신규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

영덕군은 소속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팀장급의 신규 관리감독자 37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과 26일 이틀간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현장 적용,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영덕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인식을 높이고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작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없는 근로환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희대 안전재난과장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로부터 근로자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자의 교육과 훈련에 더욱 힘을 쓰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관리감독자를 확대 지정해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등 산업재해 없는 영덕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청년 전문 해외 취업의 기회,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개최

## 5.28.~ 5.29. 2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

부산시는 오는 5월 28일부터 5월 29일 2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는 지역 청년들과 일본 및 싱가포르 우량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월 20일까지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참가 해외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입사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행사는 일본 기업 30개 사, 싱가포르 기업 1개 사가 참여해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호텔서비스 및 상담사(컨설턴트) 등 30개 직종,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외취업상담(미국 의

료계열 포함) ▲청년 대상 사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기업에 입사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5월 20일까지 '월드잡 플러스' 누리집의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전용페이지에서 해외채용 공고란을 확인한 다음, 취업 희망 기업에 '입사 지원'하면 된다.

서류심사, 행사 당일 채용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 여부가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정보망 또는 월드잡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행사 전 참가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해외취업 특강 및 기업 설명회를 사전 신청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zoom)으로 먼저 선보인다.

해외 취업특강은 오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취업특강(일본 취업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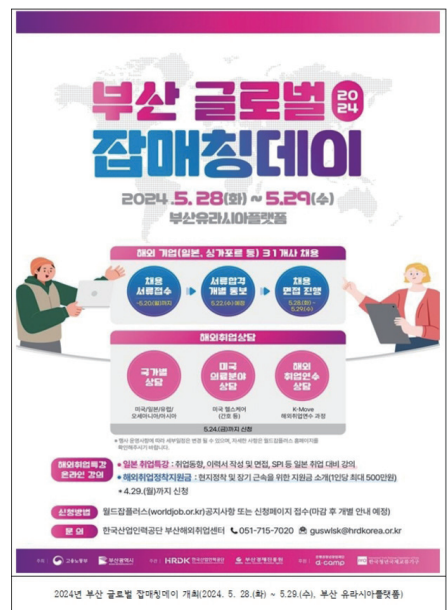
향,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 등)과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제도 소개 등으로 진행된다.

기업 설명회는 내일(30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 인사 담당자가 실제 근무환경 및 채용 정보 등을 실시간 라이브로 제공한다.

남정은 시 청년산학정책관은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는 해외 우수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공고해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라며, "이번 행사가 부산 청년들이 세계적(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지역 대학 졸업생과 청년들의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도와 해외취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산지역 대학 졸업



생 중 해외취업자 수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천27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국 해외취업자 수(4,118명)의 30.9퍼센트(%)를 차지한다.

김희태/기자

# 2024년 상반기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79명 입국

## 윤경희 청송군수, "계절근로자분들이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근무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

청송군은 지난 29일(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24년 상반기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 79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2022년 필리핀 말바시, 카빈티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필리핀 계절근로자는 지난 6일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에 이어 2차 입국한 근로자로 관내 24개 농가에서 5~8개월 간 영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입국 후 근로자들은 청송농업기술

센터 대회의실에서 근로자 준수사항과 마약 및 범죄예방 교육을 받고, 신체검사·마약검사, 개인 통장개설 등을 진행한 후 농가 대면식으로 갖고 앞으로 함께 일할 농가에 배치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의 만능적인 인력난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계절근로자분들이 빠르게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근무하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힘든 육아도 함께라서 즐거운 '대구 100인의 아빠단' 출범!

## 4월 28일 대구 100인의 아빠단 6기 발대식 개최

대구광역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는 4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함께하는 육아 문화 정착을 위해 '대구 100인의 아빠단' 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구 100인의 아빠단'은 3~7세 자녀를 둔 초보 아빠들의 육아 모임으로 2019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6기째를 맞았다. 아빠단은 8개월간 매주 주어진 온라인 육아 미션 수행, 체험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빠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은 아빠단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육아 실천 선언문 낭독, 레크리에이션 활동, 뮤지컬 'Tools'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관람한 뮤지컬 공연 'Tools'는 복성로를 모티브로 해 다양한 공구를 활용한 연주에 코믹 스토리를 더한 작품으로 참석한 아빠와 아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발대식에 참가한 아빠단 J씨는 "작년에도 참여하신 선배 아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 또한 육아 달인이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 아빠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기대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의 자랑인 100인의 아빠단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돼 아빠, 엄마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가 널리 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가 되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 아빠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기대된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대구시의 자랑인 100인의 아빠단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돼 아빠, 엄마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가 널리 퍼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가 되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영양군 제3회 영양 별천지배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

영양군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영양공설운동장 및 축구경기장에서 제3회 영양 별천지배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양에서 개최하는 전국 단위 축구대회로서 50대부 12개 팀이 참가했던 전년 대비 참가 규모를 늘려 50대부 14개 팀, 60대부 8개 팀으로 총 22개 팀 480명이 참가했고, 경기 결과 50대부 우승은 경남 김해 F.C., 60대부 우승은 경기 수원 F.C 팀이 차지했다.

영양군에서는 축구경기장을 확충하

여 대회 참가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등 전년 대비 더욱 발전된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며, 대회 참가 선수단 및 가족 등의 영양군 방문으로 관내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에서 영양을 찾아온 동호인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대회가 모두 하나되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경남도, 5~6월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빈번 안전사고 주의

## 농기계 사용 전 점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 철저히!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봄철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경남 도내 농기계 사고 건수는 467건이며 이 중 농번기(5~10월)에만 315건(67.4%)이 발생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농기계 사고는 4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심정지 사고는 3건이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로 60~70대 연령층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아 안전사고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전·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정비해야 하며, 농기계 회전체·덮개 등이 손상되면 즉시 점검 또는 교체해야 한다.

경운기 등 농기계로 좁은 도로(농로)나 경사진 길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길 가장자리나 풀이 무성한 곳에서는 노면 상태를 확인 후 길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 내리막길에서는 급하게 방향을 꺾거나 클러치를 조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 운전 시 음주운전 금지 ▲야간 주행 시 비상등, 야간 반사판 등 설치 ▲동승자 탑승과 과다 적재 금지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 준수 ▲농로 가장자리와 곡선도에서 저속 주행 등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장재현/기자





# 서대문구, 심폐소생술로 시민 구한 환경공무원 등에 구정언론홍보 표창

## 나눔과 봉사로 지역의 좋은 이미지 확산시킨 우수 단체와 개인에 수여



서대문구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정언론홍보 우수 단체 관계자와 개인 등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새벽 거리 청소 작업 도중 횡단

보도에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112 신고와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오재현 서대문구청 환경공무원이 표창을 받아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오 공무원이 약 4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사이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해 응급조치 후 이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

이 같은 미담은 여러 신문과 방송에 대서특필되며 독자와 시청자들의 마음에 훈훈함과 감동을 더했다.

아울러 수상한 금채민 화가는 서대문 카페포에서 올해 초 두 달간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 많은 시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

'갤러리 아미디'는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란 모토 아래 활동하는 전시 기획 전문 청년기업으로 '당신의 봄' 전시회를 역시 카페포에서 열었다.

'샤론베드민턴클럽'은 안산 황톳길 구간 연강 조성 때 배드민턴장 일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며, '북아현동 교통협의회'는 저소득 가구에

생활품 꾸러미를 기부하는 등 평소 나눔 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KTX 기장들의 봉사 모임인 '한울회'는 드림스타트아동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이웃돕기 활동으로, '현대교통(주) 노동조합'과 'DMC파크뷰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기부 등 꾸준한 나눔으로 주위에 귀감이 됐다.

구는 나눔과 봉사로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되며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확산시킨 우수 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이성현 구청장은 시상식에서 수상 단체와 개인의 공적을 일일이 소개한 뒤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으로 추진하시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이 '행복 100% 서대문' 구현의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만식/기자

# 영등포구, 5월 4일 '2024 영등포 어린이 축제' 개최

## 쓰레기 없는 축제...푸드존 내 다화용기 사용 및 개인 용기 지참 시 할인 적용

영등포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4일, 2024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잘 놀Go! 잘 웃Go! 잘 크Go!'를 주제로 공연, 체험, 놀이, 휴식, 푸드존 등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모두 사로잡을 예정이다.

먼저, ▲공연존에서는 비보잉과 비트박스, 방송댄스 및 태권도 시범 공연, 어린이 뮤지컬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구의 대표 합창단인 영등포구립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체험존에서는 20개 기관이 참여해 총 21개의 체험부스가 설치된다. 특히, 이번 체험존에는 VR.AR 체험과, 로봇축구.로봇농구, 3D펜 체험 등 4차 산업과 연계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미래 과학자의 꿈을 키워줄 예정이다.

또한, 풍선아트, 에코백 꾸미기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페이스페인팅 등을 비롯해 축제 내 설치된 '인생네컷' 부스에서 우리 가족의 '인생샷'을 남겨볼 수 있다. ▲놀이존에는 전문요원과 안전요원

이 배치된 에어바운스, 키즈라이더, 꼬마기차 등을 운영하여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가족들 모두 편히 쉴 수 있도록 별도의 휴식존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푸드존에는 떡볶이, 닭강정 등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들을 판매한다. 특히,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푸드트럭에서는 다화용기를 사용하고, 개인 용기 지참 시 500원을 할인해 준다.

다만, 체험존과 놀이존을 이용할 때에는 천 원의 이용료가 있으며, 이는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오전 시에는 행사가 전면 및 일부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구청 누리집' 및 '구민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금천구, 코웨이와 함께 안양천 환경정화 활동 'EM흙공 던지기 봉사활동' 진행

## 코웨이 임직원 및 가족 30여 명 참여, 지난해 상·하반기에 이어 3회째

금천구는 4월 27일 코웨이와 함께 안양천 환경정화 활동인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 던지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용미생물 흙공'은 미생물군 발효액과 황토를 반죽해 만든다. 흙공을 강이나 하천에 투입하면 서서히 수질이 정화되고 악취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어 생태계가 회복하게 된다.

이번 안양천 환경정화 활동은 코웨이

임직원과 임직원의 가족 총 30명이 참여하는 가족 참여형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10시부터 12시까지 다목적광장에 모여 흙공 1,500개를 직접 만들었고, 앞서 만들어 놓은 흙공 1,500개를 안양천에 던졌다.

봉사활동 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흙공 1,500개를 'EM생명나눔운동'에 기부했다. 기부된 흙공은 3주 이상 발효 기간을 거쳐 다음 봉사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흙공 던지기 봉사활동은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 2차례 활동에 이어 3회째다. 지난 2년간 누적 10,000 개의 흙공을 제작하고 하천에 던지며 생태계 복원을 실천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웨이의 환경을 사랑하는 봉사활동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 성북구, 2024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인센티브 35만 원 상당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2024년 상반기 성북구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통해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을 대상으로 가격, 품질, 위생 등 기준 충족해야 선

씨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평가를 한다.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된다.

성북구에는 현재(24.4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35개소가 지정됐다.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창을 교부하

고, 지역물가 안정화 기여에 대해 35만 원 상당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업소별 희망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종량제봉투, 음식물 스티커, 수건 등 소모품 및 배송방제 서비스를 상·하반기별로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전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방문 접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과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물가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강원도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캠페인”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산림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4월26일 홍천 문화예술회관 및 토리숲(산나물축제장 일원)에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과 캠페인은 지난 1월 중대 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지자체의 사업장 안전관리 의무사항 준수 필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사항의 이해,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강원 영서권 산림사업 담당 공무원 및 산림사업 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은 강원n홍천 산나물축제가 이뤄지는 홍천 토리숲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사업 특성상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28일 폐막식서 "성웅 이순신" 기억하는 시간이었길"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화려한 5일간의 일정 마무리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가 28일 폐막식을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성웅 이순신 축제'는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위업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탄신일인 4월 28일을 전후해 열리는 충남 아산의 대표 문화관광 축제다.

이날 오전 현충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총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제479주년을 기념하는 다례 행사를 비롯해 시·도 대학 공도대회, 전국 난중일기 백일장 등이 열렸다.

또한, 장군의 백의중군길을 따라 달리는 '이순신 백의중군길 전국 마라톤 대회'에는 약 7천4백 명이 참석했다.

폐막식이 열린 이순신종합운동장 주

무대에서는 군악·의장 공연과 공군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 진조 크루의 '학익진 스트릿 댄스', 월드엔젤 피스예술단과 포레스텔라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다.

해군군악의장대 연주에 맞춘 428합창단(아산시민합창단,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경기연합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을 펼쳤으며, 화려한 불꽃쇼를 끝으로 5일간 아산시 전역을 뜨겁게 달군 축제의 막이 내렸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폐회사에서 "'청년 이순신,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의 참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면서 "축제 기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축제를 즐겨주신 모

든 분께 아산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박 시장은 이어 "축제 현장 곳곳에서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분들과 관람객 편의를 위해 불편을 감내해주신 39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멋진 군악·의장 공연을 펼쳐주신 대한민국 국군 군악·의장대, 홍보대, 미8군 군악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린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행복한 추억과 함께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웅, 총무공 이순신을 기억하고 떠올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내년 축제를 기약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공군본부 의장대와 뮤지컬 '필사즉생' 연출가인 김거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원호/기자

### 충남도, 황도 봉기풍어제·대목장 전승 맥 잇는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박부국·송찬의 씨 인정...전통문화 전승기반 마련

충남도는 지난 26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황도 봉기풍어제와 대목장' 보유자로 각각 박부국(80·태안군), 송찬의(72·청양군) 씨를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황도 봉기풍어제는 황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여러 사고를 막고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을 제사로, 매년 음력 정월 초이들과 초사흘에 치러진다.

단순한 축제라기보다 황도의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종교의식에 가까운 행사로서 그 원형이 잘 남아있으며, 마을의 화목과 협동을 다지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황도 봉기풍어제가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박부국 씨를 도와 봉기풍어제의 전승과 교육을 담당할 전승교육사로 강도규·강승수·오재수 씨를 인정했다.

대목장은 우리나라 전통 목조건축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집을 짓는 전 과정의 책임을 지는 장인을 일컫는 말로, 1982년에 대목장이 국가무형문화재

로 지정된 이래 신용수, 전홍수, 최기영 씨 등 충남 출신 보유자가 3명이나 배출될 만큼 대목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도는 1990년 도 무형문화재로 '서천 대목장' 보유자 정영진 씨를 인정했으며, 정 보유자가 2011년 사망한 후 2019년 장운진(71·서산시) 씨를 인정해 대목장의 맥을 잇고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장 보유자에 이어 충남 대목장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된 송찬의 씨는 1980년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고 이광규 선생을 만나 제자로 입문하면서 본격적인 대목장의 길을 걸었다.

송 씨는 40여 년간 목수로 활동하며 창덕궁 규장각, 중요 정전 등 국보급 문화재 복원 및 보수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송 씨의 보유자 인정으로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수의 대목장 보유자를 인정하게 됐다.

도는 복수의 보유자 인정은 우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통 건축에 관



한 기술과 역량이 면면히 전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황도 봉기풍어제와 대목장은 우리 지역 선조들의 삶의 방식과 그 가치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무형유산"이며 "도민들이 문화적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전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충북도, 세계 할랄 시장을 이끄는 말레이시아에서 인기 체험



충북 농식품 말레이시아 무역사절단 파견 성료

충북도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12개 기업으로 구성된 충북 농식품 무역사절단을 파견(주관: 코트라 충북지원단)하여, 36개사 말레이시아 바이어와 1:1 대면 수출상담을 실

시한 결과 74건, 3,007천달러(약41억원)의 수출계약\*을 맺었으며, 그중 냉동 전류 전문업체인 (주)사용원이 1건 20만달러(약2.7억원)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농식품 말레이시아 무역사절단 파견은 2024년 충북 농식품 수출진흥시책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일본·미국·중국에 집중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올해 3월 신남방 중심인 태국에 충북 농식품 상설판매장을 개소한 데 이어, 할랄 시장 공략을 위해 추진됐으며, 건강음료, 김치, 소스류 등 할랄 인증을 받은 농식품 기업을 중심으로 12개 농식품 기업이 참여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킴(JAKIM) 할랄 인증을 받으면 46개국에 추가 인증 없이 할랄 제품 수출이 가능한 글로벌 할랄 허브 국가로, 1조 1700억 달러의 할랄 식품 산업(2021 글로벌 이슬람 경제보고서)을 선도하며 한류의 인기와 함께 케이푸드(K-Food) 수출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충북도 우경수 농정국장은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무슬림으로 할랄 시장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며, 충북 해외마케팅 사업과 할랄 인증 취득 지원 사업 등으로 충북 농식품 할랄 시장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2024년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성료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계절 축제 도시 태백에서 펼쳐졌던 '2024년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가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산나물축제는 '태백이는 왜 취했을까요?(봄에, 맛에, 향에)'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시가 올해 새롭게 조성한 장성탄탄마당에서 개최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 기간 내내 초대 가수 공연, 산나물 골든벨, 서커스, 노래자랑 등이 이어져 축제의 분위기를 더

했으며, 행사장에는 화분·공예품 만들기, 응급구조 체험, 로데오 경연대회 등이 진행되어 축제를 찾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각종 산나물과 한우를 할인판매하고, 농특산물 가공품, 산나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 등이 판매되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됐다.

특히, 축제 기간 중 판매되는 산나물 박스(1kg) 안에 무작위로 금반지(1돈) 교환권이 들어있는 '산나물 상자 안 금반지를 찾아라' 이벤트를 통해 산나물을

구입한 시민과 관광객은 산나물과 더불어 금반지의 주인공이 되는 행운을 잡을 수 있었다.

태백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까지 화려한 봄을 자랑하는 사계절 축제도시 태백에서 개최된 태백천상의 산나물 축제가 안전하고 풍성하게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시민분들과 관광객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 봄에도 즐겁고 화려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봄, 영양으로 GO!**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 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 영양군  
주관: YTFP 영양축제관장재단



# 서울시, 청년일자리 해결사 청년취업사관학교 2천번 째 취업자 탄생...올해 20개 캠퍼스로 확대

##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교육과 취·창업 연계지원으로 취업경쟁력 높일 것



취업준비생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기업들은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자리 mismatch.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2천 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2020년 10월, 서울시 청년들의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개관한 새싹 영등포캠퍼스에서 이듬해 첫 취업자가 탄생한 이후, 3년 만인 2024년 4월 현재, 취·창업자 2,012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과정에 따라 3~6개월간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생별 수준에 맞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Pre-Post 과정도 운영된다.

2023년도 교육과정의 모집경쟁률은 3.9대1로, 2,304명 교육 및 취·창업 밀착 지원 결과, 수료생 4명 중에 3명(75%)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청년취업사관학교'의 강점으로 ▲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양질의 커리큘럼 구성·운영 ▲ 채용연계형·기업주도형 등 기업 직접 연계 과정 개발 운영 ▲ 현장 개발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탄탄한 강사진 ▲ 현장 수요기업, 교육파트너 등 대내외 기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일자리 연계코스 운영 ▲ 교육규모, 형태별로 디지털 교육에 최

적화된 학습환경 제공 등이 꼽힌다.

# 2,000번째 취업자 A씨는 이탈리아어를 전공하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던 차에, SW분야로의 직무 전환을 위해 새싹 SW 과정에 참여했다. 이전에 부트캠프 개발자 과정을 수강했지만 취업 준비에 부족함을 느꼈던 중 클라우드 과정을 수강했고,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양질의 수업을 듣고, 이력서/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도화와 더불어 기업 및 직무별 특성에 맞춘 취업 지원 덕에 비전공자임에도 클라우드 직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용산캠퍼스 SW2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엔지니어 양성과정)

기업이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과정을 개설, 운영한 후 수료생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기업 연계 과정'의 경우 2023년 14개 과정을 운영하며 평균 92.6%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2024년에는 2배 이상인 30개의 '기업 연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 금융 ICT개발자 양성과정(100%), 기업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과정(88.9%), 브랜드 패션 플랫폼 콘텐츠 프로바이더 과정(88.9%) 등이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다.

시는 올해에도 20·30대 청년구직자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챗 GPT 등의 과목을 개설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키워서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에만 52개 교육과정이 개설되며, 1,352명을 모집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강북, 관악, 강남 등 신규로 조성하는 5개 캠퍼스를 포함해 총 20개 캠퍼스가 운영된다. 110개 교육과정에서 약 2,800명의 현장형 인재가 배출된다.

현재, 영등포·금천·마포·용산·강동·성동·도봉 등 15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2024년 강북(6월말)·관악(8월말)·강남(9월 중순)·노원(10월말)·은평(12월 초순) 등 5개 캠퍼스를 조성 순차적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각 캠퍼스의 교육 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교육생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생은 교육분야의 기초지식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모집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취업의지가 있다면 전공과 관계없이 무료로 교육에 참여 가능하다. 캠퍼스별, 세부 교육과정별 모집기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취업사관학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는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전담 취업상담원(Job-코디)의 일대일 취업 상담, 매칭데이, 채용설명회 참여 기회까지 원스톱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분석 등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형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 중이다. 챗 GPT, 디지털헬스케어 과정을 도입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의 기술트렌드를 반영해 디지털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고양시, 미(美) 폴턴 카운티 경제사절단 투자설명회 개최

## 미(美) 지방정부와 산업·경제 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고양특례시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인 지난 27일 미국 폴턴 카운티 대표단과 폴턴 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투자유치 정보 교류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폴턴 카운티(Fulton County)는 애틀랜타시를 포함 15개 시로 구성된 인구 100만의 포지아주 최대 카운티로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과 조지아 주립대학을 비롯해 코카콜라와 델타항공 등 포춘지 500대 기업 중 18개 사의 본사가 위치한 경제 중심지이자 교육의 중심지이다.

또한 최근 기아 전기차 공장이 설립되고, 에스케이(SK)·한화 등 130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이기도 하다.

롭 피츠(Robb Pitts) 폴턴 카운티 의장은 "비비시(BBC)가 주목하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세계의 뒤어난 5대 도시'인 고양시에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방문

하는 길에 보니 도시가 정말 깨끗하고 주변이 꽃들로 너무나 아름다워 왜 주목할 만한 곳인지 동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마이스(MICE)·문화·교통 등 지리적 강점이 있는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길 바라며,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월 폴턴 시와의 교류 협력에 이은 폴턴 카운티와의 산업, 경제 분야 업무협약 체결이 뜻깊다"고 말하며 "고양시가 세계적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기획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양측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폴턴카운티 대표단은 이동환 시장과 함께 꽃전시장과 박람회장을 함께 돌아보며 전시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고양 아

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로 이동해 견학을 이어나갔다.

한편, 시는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더불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창릉3기 신도시 첨단기업유치 등을 통해 전략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 전남도-베트남 동나이성, 우호교류 초석 마련

## 경제통상·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키로



전라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 가운데 하나인 동나이성과 우호교류의향서(LOI)를 교환하고, 경제통상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동나이성의 응우옌 흥 링 당서기, 응우옌 티 호안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교류의향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농업,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2월 김영록 지사가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동나이성에 우호교류를 제안했고, 이번에 동나이성 대표단이 방문해 우호교류의향서 교환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지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지속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동남부에 위치한 동나이성은 호치민을 비롯한 6개 광역 지방과 인접해 있어 교통·물류 중심지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가장 많은 투자 유망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해외투자 기업 중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투자(72억 달러)를 한 지역이다.

전남의 해외수출은 지난해 45억 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베트남 수출은 27억 달러다. 국가별 수출 순위는 중국, 일본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전남도는 지난 1997년 5월 바리 아봉따우성, 2012년 12월 켄터시, 2022년 8월 빈 프억성에 이어 이번 동나이성까지 베트남과의 외교영토를 4개 지방정부로 확대하게 됐다.

박종배/기자

# 강원특별법 시행(6.8.) D-40, 특례를 반영한 '강원연구개발특구'기본구상 및 전략 발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24. 6월 시행) 핵심특례로 반영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강원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전략을 발표하였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을 말한다.

현재 전국에는 대덕특구 등 5개의 광역특구가 운영 중이나, 특별법 특례를 통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강원 자치도가 첫 사례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도지사가 특구 지정·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강원특별법을 통해 특례로 받게 되었으며, 특구 지정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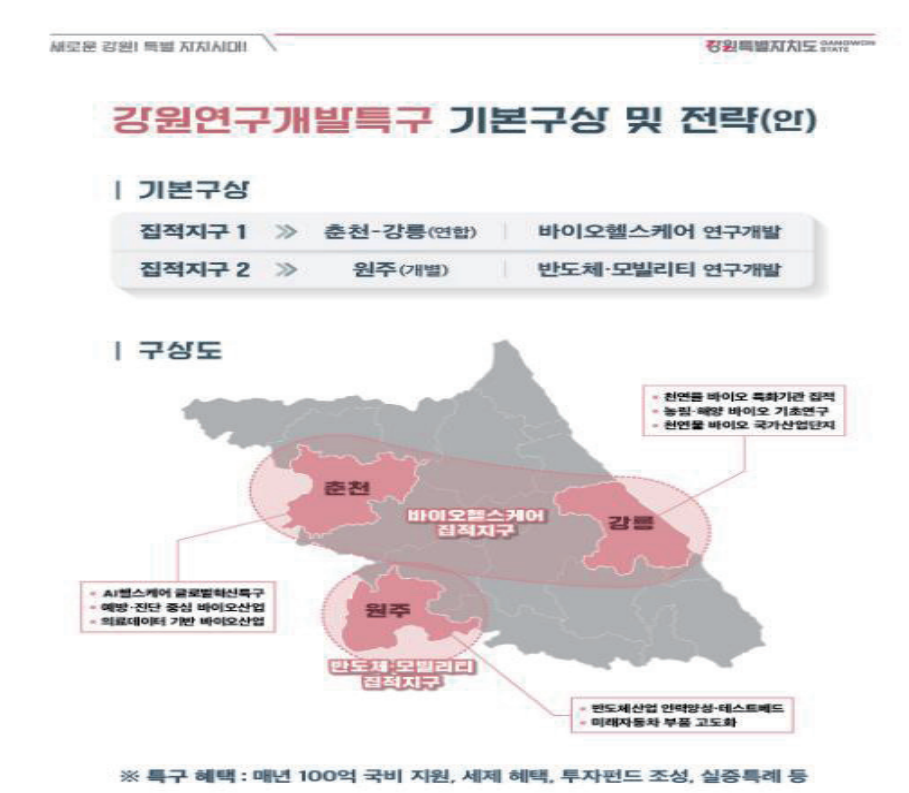
이에, 도에서는 기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국립·정부출연기관 3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완화하였으며, 그 외에 대학 3개 이상(이공계 학부),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은 동일하다.

향후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세계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특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도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 충족과 도내 전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춘천·원주·강릉의 특화 전략산업과 연계한 '강원연구개발특구(안)'를 구성하였다.

'강원연구개발특구(안)' 주요내용 춘천-강릉·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 집적지구'

- 춘천은 바이오의약품 및 체외진단, 디지털치료기기 등 연구개발 고도화 및



산업화에 강점이 있고, 강릉은 과학산업단지 내 집적된 연구기관을 활용한 천연물 소재 기초연구에 강점이 있다. → 디지털 기반, 융복합 바이오·헬스 산업의 메카로 육성

원주·반도체·모빌리티 연구개발 집적지구'

- 원주에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확장에 대비 중이며, 현재 조성 중인 반도체 개발·실증 인프라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연구 클러스터를 조성

향후, 도에서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특구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관계

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동안 연구개발특구는 관련법에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에게서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지만, 강원특별법을 통해 춘천, 원주, 강릉 세 개 도시가 연합해서 도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오늘 발표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종합계획수립부터 타당성 조사,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며, "기본구상 전략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25년 1월 정식 지정 요청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호철/기자



# 경북교육청, 고교 성취평가 선도 교원 1교 1명 양성

##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 성취평가 현장 안착 지원

경북교육청은 27일 청송군에 있는 소노벨 청송에서 고등학교 교사 1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취평가 현장 안착을 위한 고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성취평가와 서·논술형 평가 현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단위 학교 성취평가 업무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수업과 평가 전문가인 경북의 수석교사 4명(박양희 선주고등학교 수석교사, 최연호 사곡고등학교 수석교

사, 박지은 북삼고등학교 수석교사, 임경숙 김천여자고등학교 수석교사)이 연수 모듈을 구성해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수 학습과 평가계획 수립 단계부터 성취평가 결과 기록·피드백 단계까지 성취평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6시간 동안 이어진 연수를 통해 참가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연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방법', '보통 점수 설정', '성취평가 결과 분석과 활용 방법', '성취 기준 분석, 평가 요소 추출, 채점 기준 작성 등 성취평가 운영 방

법', '최소 성취율 행동 특성 기술', '성취평가 결과 기록 및 피드백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단위 학교 성취평가 선도 교원으로서는 성취평가 관련 교내 전담 연수와 업무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생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이번 연수에 이어 2차로 실습 중심의 심화 과정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고교 교원의 성취평가에 이해와 학생 평



가 역량 함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단위 학교 성취평가 선도 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2025년에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서 성취평가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교육지원청 순회 보건교사와 유치원 보건교사 연수 실시

## 보건교육과 유치원 보건 교육활동으로 유아 건강관리 강화

경북교육청은 27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교육지원청 순회 보건교사 32명과 유치원 보건교사 22명 등 총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 순회 보건교사와 유치원 보건교사의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적응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응급처치 연수를 통해 상황 발

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최대해 구미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학생 응급 처치 관리'에 대한 특강과 윤재덕 포항동성고등학교 교장의 '플랫폼을 활용한 보건 수업'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진행됐다.

연수에 참여한 교육지원청 순회 보건교사(18개 교육지원청, 32명)는 보건

교사가 없는 40명 미만의 학교를 주 1회 순회하며 보건교육을 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과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 청소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학부모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유치원 보건교사(22명)는 공립단설유치원에 배치되어, 손 씻기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유아의 건강관리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대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순회 보건교사와 유치원 보건교사의 학생건강관리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사의 책무성을 높인다.

## 성주교육지원청, 중등학교생활기록부담당자 연수 실시 채종원 교육장,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성장, 학습과정 중심 종합기록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중요, 기재 및 관리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해

경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금), 성주교육지원청 3층 컴퓨터실에서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단위 학교의 학생부 기재 및 관리 체계 개선, 보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부당 정정 행위를 근절시키고, 내실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교사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각 학교 업무 담당자들은 항목별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점검 체크리스트를 살펴봄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라는 노력을 하였

으며, 오늘 연수 이후에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교내 연수 및 자체 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채종원 교육장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써 그 공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동현/기자



# 영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관계자 현장 체험 연수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태영)은 2023. 4. 27.(토)에 관내 학교 영양교사 및 조리사(원) 등 학교급식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연수를 실시하였다. 정금자/기자

이번 연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급식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연수를 통하여 창의적 마인드 및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연수 내용은 대구수목원 및 앞산공원의 자연환경을 관광하고 서문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며 연수 참가자들이 긴장과 피로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고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정금자/기자

# '울릉교육지원청 Wee센터' 2024 1학기 학업중단 예방의 날 캠페인 운영

##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이해 학생들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중단숙려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돼

울릉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24, 25일 양일간, 2024학년도 1학기 학업중단 예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대상은 울릉고등학교(학교장 조영철)와 울릉중학교(학교장 권오수) 전교생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아침맞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학업중단 예방의 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숙려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침맞이 프로그램 '나의 선택은?'을 운영하였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하이파이브, 손가락하트, 배꼽인사, 주먹인사중 선택한 인사 방법으로 선생님, 친구들과 인사해 보는 활동이다. 충분히 인사를 나누는 뒤에는 울릉Wee센터에서 준비한 간

식과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제작된 타포린 가방을 전달하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안내 하였다. 특히 울릉Wee센터에서 처음 시도하는 Wee센터 쿠폰을 배부하여 상담활동에 관한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였다.

울릉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중단 예방의 날 캠페인을 통해 매일 하는 인사가 아니라 색다른 인사를 해서 재밌었다."고 전하며, "남은 학교생활 재미있게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졸업 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울릉중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손가락하트를 주고받으며 등교해서 하루 중일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아침부터 사랑이 넘치는 등굣길이 되었다."라며 반복되는 학교생활 속에서 새로운 활기를 찾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학업중단 예방의 날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색다른 등굣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덧붙여 학업중단숙려제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해보며, 한 명도 낙

오 하지 않고 함께 졸업하자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울릉Wee센터는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맞춤형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강제/기자

# 2024학년도 신학기 상담주간 위(Wee)센터와 함께 위(Wee)로 받는 상담주간

의성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8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 4주 동안 위(Wee)센터와 함께 '위(Wee)로 받는 상담주간'을 운영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상담실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위(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상담실 위(Wee)심리카페'와 상담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일과 시간 이외의 시간에 위센터로 직접 내방 하여 실시되는 야간 상담실 '별빛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새 학기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탐색하고 위기를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학생들의 주된 호소 문제인 자기 정서에 대한 어려움,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들로 인한 힘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금자/기자



# 피어나다 남원

## 춘향, COLOR 愛 반하다!

# 남원 춘향제

제94회

# 24. 05.10.(금) ~ 05.16.(목)

광한루원, 예촌, 요천둔치 및 사랑의 광장 일원



# 서울시, 90명의 시민이 만드는 치안정책... '서울 자치경찰 시민참여단' 출범

## 우리동네 치안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안에 참여



수십년간 지역을 순찰한 어르신 자율방범대원, 최근 반려견과 함께 우리 동네 지킴이로 활동을 시작한 청년, 세 자녀를 둔 다둥이 부모 등 기성세대부터 MZ세대가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우리동네 안전을 위해 치안정책에 참여하는 '서울자치경찰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과 함께 지역 치안정책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시민정책자문단'은 2년의 활동을 마치고 '서울자치경찰 시민참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해 26일 시민청에서 60여 명의 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참여단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치경찰제도 소개와 참여단 활동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권역별 상호 소통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이 참석해 새롭게 위촉된 참여단을 격려했다.

2기 참여단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 ~ 4월 19일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 치안에 대한 관심도와 공익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90명으로 꾸려졌다. 선발된 시민참여단 대부분은 지역사회 안전과 사회적약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다.

참여단은 20~30대 36명(40%), 40~50대 27명(30%), 60대 27명

(30%)으로 연령대별로 고르게 구성됐고, 지역 치안을 위해 주민순찰활동 등의 봉사를 해왔거나 장애인복지·아동보호·범죄피해자보호·외국인교육·공공의로 분야 등에 종사하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됐다.

참여단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며 △범죄예방, △사회적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에서 우리동네 치안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안한 의견은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지역 치안현장 방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로 구성된 참여단이 실용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동네 범죄 취약요소 점검 등 치안 현장의 이해를 돕고, 참여단의 활발한 교류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시민이 주체적으로 치안정책 마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시민참여단 의견을 꼼꼼히 살피고, 이를 지역 치안 개선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청송군자율방재단 총회 및 이·취임식 개최

## 윤경희 청송군수, "올해도 인명피해가 한 건도 발생지 않도록 생활주변 재난 위험요소를 살피고 점검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

청송군자율방재단은 지난 25일(목),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청송군지역자율방재단은 2008년 8월 『자연재해대책법』과 『청송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민간 봉사단체로크고 작은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봉사를 펼침으로 소중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자율방재단에서는 여름철 폭우 및 태풍에 대비하여 각 읍·면의 위험지역을 사전에 시찰하고 예방활동을 펼쳐 폭우 및 태풍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보탬이 되어왔다.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제16호 태풍 "카눈"으로 청송군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나 피해 현장에 청송군자율방재단이 앞장서서 하천재방 쌓기, 농로 유실 복구 등의 응급복구 활동을 펼쳐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군민들로부터 귀감을 샀다.

신임 단장으로 취임한 김태환 단장과 단원들은 "앞으로도 청송군지역자율방재단이 경북도 내의 모범적인 방재단으로서 대형화, 복합화 되어가는 자연재난의 관리를 청송군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재전문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 재난예방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자율방재단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도 인명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단원께서 생활주변의 재난 위험요소를 더욱 살피고 점검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 "중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철저"

## 실과소·읍면 열린소통회의,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시행 철저대응 강조

명현관 해남군수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봄철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인식개선을 통해 단 한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은 관내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 예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시행 이후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법 적용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의 안전수준 개선을 적극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4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건설,제조업체 사업주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컬선텔 등 중소기업 사업장을 위한 맞춤형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사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했다.

명현관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



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근로자들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등 실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풀베기 사업단과 산불진화대 등에 대해서도 현장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군민의 날과 해남공룡축제 등 이번주말까지 이어지는 행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군정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대해 전 부서가 협업체 대비해 나가는 등 군정 추진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갑문/기자

# '청년 마음건강 빵빵하게!'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음건강사업 행사 성료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봉화군청 잔디광장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사업-청년 마음건강 빵빵하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악성 민원 등으로 업무에 지친 정신과 몸을 힐링하고, 분주한 일상으로 방전된 마음을 점검하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청년고민상담소, 생명사랑충전소, 추억충전소, 에너지충전소'라는 각 주제로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과 전통놀이, 추억의 과자 나누기, 커피차 무료이용, 캠핑휴식존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마음건강 돌보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조성일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스트레스, 우울 등 마음 건강 문제를 겪는다."면서 "청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청년마음건강사업(청년고민상담소)은 지난 1월 22일을 시작으로 봉화 관내 고3 졸업예정자, 20~30대 청년,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봉화소방서, 봉화노인복지관 종사자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JCI봉화정년회의소, 여성예비군 등 관내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청년마음건강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선일/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2024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www.sabal21.com

# 2024 문경찾사발 축제

2024. 04. 27. (토) - 05. 06. (월)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일원

## 문경찾사발, 새롭게 아름답게



박서진



박군



조명섭



영기



주미

### 개막식

2024. 04. 27. (토) 14:00  
문경새재야외공연장 일원

주최 | MG 문경시

주관 | 문경관광진흥공단 문경찾사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문경도자기협동조합

협찬 | 농업중앙회 문경시지부 DGB 대구은행 문경지점

